



[해설] LG 사업보고회 '고객 중심' 기반 디지털 가속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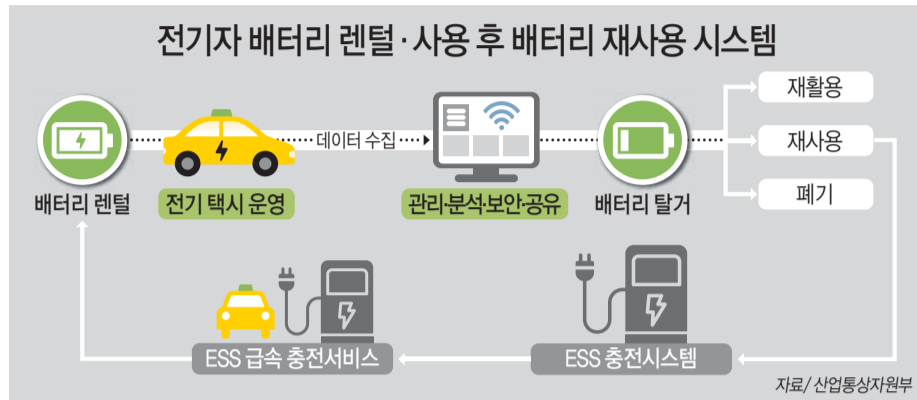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346.74 (+5.21)	코스닥	822.25 (-11.59)
금리 (미국 3년)	0.891 (+0.003)	환율 (원/달러)	1142.00 (-5.40) (19일)

'사용 후 배터리' ESS로 재활용... 정부, 규제 면제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사업부터 태양광 발전 생산전력 저장 등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실증특례



앞으로 전기차에서 사용한 뒤 버려지는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차가 추진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에 정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2029년까지 8만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그린경제를 앞당기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사업'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 9건, 임시허가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신청 업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여러

개를 합쳐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구바이카)한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사업을 함께 수행해볼겠다고 신청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탈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연간 약 7만km)가 길어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

모델에 적합하다.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 실증에 나선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CT 강국 대한민국 135년 통신사는 어디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데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 박물관이 없는 건가요?"

5세대(5G) 첫 상용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마땅한 정보통신박물관이 없어 정보통신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정보통신박물관 추진 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1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4일 한성정보총국 개실 13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전시관 'KT텔레뮤지엄'을 선보였다. 온라인을 통해 KT가 소장한 6000여점의 통신 사료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전시다.

KT 관계자는 "원래는 더 짧은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었다"며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博 추진 계획 전무 미래투자 집중, 역사는 뒷전 인력 전문화 위해 개관 필요

KT '텔레뮤지엄' 선보여 6000여점 통신사료 소개

하지만 최근 열린 온라인 전시를 제외하고는 직접 찾아가서 통신 역사 기념품이나 사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KT가 자체적으로 약식으로만 전시하는 정도다. 정보통신 역사 관련 사료 등은 대부분 KT 원주연수관에 보관돼 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부분 정보통신 박물관이 마련돼 있다. 박물관 인력 풀은 정보통신 역사 관련 학술 단체에 준하기도 한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은 베이징에 중국통신 박물관이 설립돼 있고, 일본은 도쿄에 큰 규모로 NTT 기술 역사관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발전은 135주년에 달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최초 통신은 1885년 9월28일 지금의 서울세종로에 한성정보총국(KT의 전신)이 개국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인터넷 강국이 되기까지 통신사업 5개년 개발 계획부터 전국광역 자동화, 전국 초고속 통신망 구축까지 수많은 전환기가 있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자리한 전기통신발상지기념탑. /김나인 기자

정부에서는 매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보통신 발전 공로자에게 포상 등을 하는 등 기념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정보통신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우리나라에 아예 정보통신박물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서울 용산에 정보통신박물관을 세웠으나 폐관됐으며, 1996년 충청남도에 충남정보통신박물관을 설립하려 했지만 청사 임대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단순 유물 전시뿐 아니라 역사 편찬이나 전문전담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도 박물관을 개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홍성무 부회장은 "정보통신 박물관이 있어야 전문 인력 양성에 활판데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살되고 있다"며 "해마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정부는 ICT 미래 기술 투자 등에만 집중하고 있어 정보통신박물관 개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보통신 관련 박물관 설립 추진 계획은 없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박물관 개관의 경우 예산 타당성 심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유류청사나 건물을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보통신 박물관을 세울 수 있다는 대안도 있다. 정보통신 발달이 가속화돼 자동화, 전자화되면서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류청사나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실제, 스웨덴 통신박물관도 유류건물을 활용해 세워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 시작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성약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17세 男 무료접종 이틀 후 사망 질병관리청 "정확한 원인 조사"

운반 도중 상온 노출로 논란이 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10대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이 공급한 무료 백신을 맞았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독감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353건이 신고됐다"며 이 가운데 사망 사례가 1건이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인천 지역에서 접종받은 17

세 남성으로,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은 후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다만, 예방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사망자가 접종한 독감백신은 신성약품이 조달한 백신이 맞지만 회수대상 백신은 아니며 해당 백신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전후 특이사항은 없었고 현재 부검으로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용액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되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한국백신 제조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질병청은 이날 한국백신이 제조한 독감백신 가운데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한 백신을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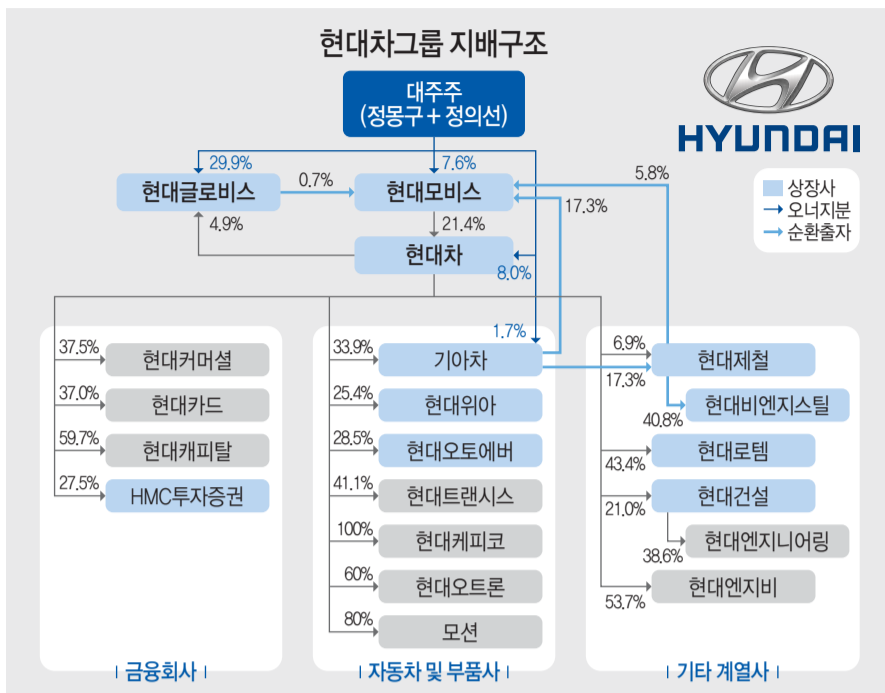
반면, 상온에 노출돼 회수된 신성약품 조달 백신 일부 물량에 대한 처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백색입자가 발견된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총 6897명이며, 그 중 93.1%가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selee@

현대차, 지배구조 주목... '투 비스' 순환출자 해소 열쇠

(글로벌·모비스)

모비스 투자·모듈, AS 인적분할 두 법인 상장유지 '유리한 방안' 글로벌·모비스 지분교환 할 듯 "모비스 성장비전 명확해 저야 지배구조 개편 과정 원활할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입회장 체제하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떠오르며 일부 그룹주가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목표주가도 잇따라 상향됐다.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반영된 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계없이 일부 그룹주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은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로 압축된다.

◆지배구조 개편=경영권 승계+순환출자 고리 해소

현재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차(17.3%)→모비스 ▲기아차(17.3%)→현대제철(5.8%)→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차 ▲현대차(4.9%)→글로벌(0.7%)→모비스(21.4%)→현대차 ▲현대차(6.9%)→현대제철(5.8%)→모비스(21.4%)→현대차 등 4개로 압축된다. 각각의 계열사들이 그룹 주요 3사의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회장은 가진 지분은 현대차 2.6%, 기아차 1.7%, 현대모비스 0.3%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지분을 23.29% 보유 중이다. 정 회장은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리한 방안은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가 주주 반대로 무산됐던 2018년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투자부와 모듈·AS 사업부만으로 인적분할해 두 법인 모두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후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벌 지분과 현대모비스 모듈·AS 사업부 지분을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주환원을 의식한 개인투자자도 호응을 보내고 있다. 2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데다 정 회장 역시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 회장 취임이 공식화된 지난 14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개인투자자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벌 주식을 각각 2963억원, 441억원씩 사들였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2위, 8위다. ◆핵심은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 입장에서 현대차의 최대주주이자 그룹주 최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해선 현대모비스의 실적 개선과 성장 동력 가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의 가치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정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

모비스 분할 후 합병, 주식 교환, 외부 매각 등 어떠한 형태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현대글로벌 지분 가치가 상승할수록 오너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 현대글로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된 이후로는 현대모비스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성장비전이 명확해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현대오트모와 현대엔지니어링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어 눈여겨 보라"고 권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를뿐더러 그 방법 역시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기업 대부분이 부진한 주가흐름을 경험했던 것을 복기했다. 그는 "당분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현대차그룹 주가는 이벤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오너가 보유한 주식의 강세와 현대모비스의 약세 현상이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김동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

모비스 분할 후 합병, 주식 교환, 외부 매각 등 어떠한 형태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현대글로벌 지분 가치가 상승할수록 오너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 현대글로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된 이후로는 현대모비스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성장비전이 명확해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현대오트모와 현대엔지니어링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어 눈여겨 보라"고 권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를뿐더러 그 방법 역시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기업 대부분이 부진한 주가흐름을 경험했던 것을 복기했다. 그는 "당분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현대차그룹 주가는 이벤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오너가 보유한 주식의 강세와 현대모비스의 약세 현상이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기업 88%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가속"

사람인, 기업 265개사 대상 조사 26% '무인화트렌드에 직접영향'

사회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AI)이나 기계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무인화'도 함께 확산되는 추세다. 유통가에서는 이미 '키오스크'를 활용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장 등의 생산라인에서 자동화도 빨라지고 있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에서 기업 265개사를 대상으로 '무인화 시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코로나19 이후 무인화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최근 산업 전반의 무인화 트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6%였다. 영향으로는 '인건비 등의 절감' (43.5%, 복수응답)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고용규모 축소(34.8%) ▲건축 비용 부담 증가(29%) ▲무인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29%) ▲기업의 생존 위협(24.6%) 등이 있었고, '기존 직원 감축' 기업도 23.2%였다.

응답 기업의 67.2%가 '무인화로 인력이 필요 없어지면서 고용이 축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고용충격이 예상되지만, 무인화 도입에 찬성(65.3%)하는 기업이 반대(34.7%)보다 많았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절감 통한 수익개선' (57.8%, 복수응답)을 무인화의 가장 큰 수혜로 보았다.

/이현진 기자 ihj@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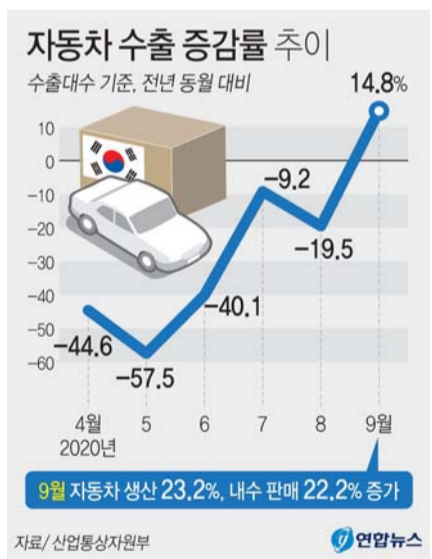
(23.2%) (22.2%) (14.8%)

산업부, 9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내수·수출증가... 생산 34만2489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국내 자동차 산업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은 +23.2%, 내수 +22.2%, 수출 +14.8%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자동차 내수 증가세 회복과 수출 동반증가에 따라 차 생산이 늘었고, 특히 중·대형 세단과 SUV 생산이 확대



되면서 지난 달 34만2489대를 생산했다. 차종별 SUV는 19만5000대

(35.5% ↑), 대형세단은 2만9000대(53.3% ↑), 중형세단 2만2000대(7.3% ↑)로 증가했다.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급증과 신차효과, 영업일수 3일 증가 등으로 16만2716대가 판매됐다.

지난달 국산차는 13만7771대 팔려, 내수 판매 비중은 국산차가 84.7%(+1.8%p)로 커진 반면, 수입차는 15.3%(-1.8%p)로 줄었다.

특히, 베스트 셀링카 톱5(1위 그랜저, 2위 카니발, 3위 쏠렌토, 4위 아반떼, 5위 K5)를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 대수는 그랜저가 11만3810대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용수 기자 hys@

굿바이카,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 추진

>> 1면 '사용 후 배터리...'서 계속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요리 등에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

전국 지자체는 사용후 배터리 200여개를 보관 중이며, 2029년까지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기차는 폐차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재사용 가치나 성능·안전성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쌓여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도 70~80% 정도 효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나 성능,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형기업들은 2년의 실증기간에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한다.

/양성운 기자 ysw@

이재용, 이달 말 다시 재판... 삼성, 경영공백 어찌나

22일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공판 26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공판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말부터 다시 재판에 돌입한다. 삼성도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준비 기일을, 26일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이후 9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불법 승계 관련 재판도 이번 공판준

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측은 그렇다할 증거없이 기소를 강행했으며, 이 부회장 스스로가 피해를 줬다며 모순적인 배임혐의까지 추가한 바 있다. 일단 이 부회장은 이번 달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불법 승계 관련한 다음 달 본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본격화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부터 1년간 수감 생활뿐 아니라 검찰에 10여 차례 소환되고 80여차례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경영에 힘을 쏟지 못했다.

그나마 올 초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이후부터 다시 경영에 힘을 쏟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부문 독립을 진두지휘한 데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소재 확보와 지원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체질 개선과 평택캠퍼스 투자 확대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IBM과 엔비디아 등에서 최신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에도 공이 컸다고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

벌써 2021년 준비하는 LG 구광모號... 재계 첫 사업보고회

‘고객 중심’ 기반 디지털 가속... ‘뉴 LG’ 내년이 더 밝다

구광모 회장 사업보고회 주재

코로나19에 1년 만에 개최 실적·기술·LCD 투자 등을 경영 성적표 우수 ‘의미’ 내달 말께 정기인사 단행

LG그룹이 일찌감치 연말 결산을 시작한다. ‘고객 만족 경영’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빛을 발한 상황, 계열사 전반에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구광모 회장 중심 ‘뉴 LG’에도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이날부터 1달여간 사업보고회를 진행한다.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개최했지만, 올 초에는 코로나19로 취소한 탓에 1년 만에 열게됐다.

LG 사업보고회는 그룹과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그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다. LG는 사업보고회를 바탕으로 11월말 정기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구광모 회장이 경영 4년차를 앞두고 주재하는 사업보고회로 관심이 높다. 그동안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색



구광모 LG 대표

깔을 드러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영 성과도 긍정적이다. LG전자가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LG화학과 LG유플러스 등 핵심 계열사들도 높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OLED 패널 생산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IPS 등 고급 기술을 내세운 LCD 사업까지 대박이 나면서 7분기만에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된다.

여기에는 구 회장이 강조해왔던 ‘고객 만족 경영’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구 회장은 그동안 임직원들에 고객 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LG전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트루 스템’을 비롯한



구광모 LG 대표가 서울 서초 R&D캠퍼스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객 중심 상품성이 꼽힌다. 기술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 구 회장은 2018년 총수에 오른 후 첫 행보로 LG사이언스파크를 택한 이후 11번이나 발걸음을 하며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개발을 당부했다. 덕분에 올해 대형 OLED 양산 안정화와 소형 OLED 공급, 배터리 등 전장 사업 확대 등을 이뤄내기도 했다.

내년 전망도 밝다. 가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업 효율화 성과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LG전자는 벨벳에 이어 LG윙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적자폭도 크게 줄고 있는 상태다. OLED 패널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 전장 소재 등 부문에서도 연이은 호실적이 기대된다.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 작업은 이번 사업보고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총을 통해 분사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구 회장은 새로운 조직구성과 사업 계획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은 최근 다양한 회유책으로 주주들 달래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3분기 정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3년간 고배당 정책까지 약속했다. 세계 최



서울 여의대로 LG트윈 타워. /연합뉴스

초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화학만의 높은 경쟁력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사업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프로야구단인 LG트윈스가 올 시즌을 2위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2013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순위로, 2002년 이후 18년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26년만의 우승 기대감도 커졌다. 최근 선수들이 ‘스위블 세레모니’로 LG윙을 응원하기도 했다. 만약 우승까지 해낸다면 구 회장이 선대 회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되는 셈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전문가 육성 토양인데... SOC 중 정보통신만 박물관 없어 안타까워”

인터뷰 | 김부중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

체신부부터 한국통신까지 정보통신 근대화 산증인

“박물관을 만들어야 정보통신 발전 역사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이 생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더 이상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끈질기게 끈을 놓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만난 김부중(81)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한국통신 기획조정실장, KT 파워텔 사장 등 역임)은 결의에 찬 눈으로 이 같이 말했다.

김부중 회장은 과거 체신부 시절부터 한국통신 시절까지 정보통신 기획 분야에 35년 넘게 종사한 정보통신 근대화의

산증인이다. 1985년 통신 100주년을 맞아 한국전기통신 100년사를 1년 간 편찬하기도 했다. KT 홍보실장을 역임하던 시절에는 서울 광화문 전기통신 발전 기념탑 건립 추진에 힘쓰기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 실무 경험자들과 관련 교수들이 20여명 가량 모인 비영리사단법인인 정보통신역사학회를 통해 전기통신 발전 기념탑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2016년부터 공중전화, 폐배, 초창기 휴대폰까지 매년 공모전을 열고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주제는 과거 문자 송수신 필수품이었던 텔렉스(Telex)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공모전이다.

그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전보·전화 등 정보통신 관련 내용이 교과 과정에 있는 만큼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이미지를 살리는 공모전을 여는 등 관심을 가지면 좋는데 학회 차원에서 간소하게만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부중 회장과 그의 일문일담. -우리나라는 통신 인프라 보급 및 접근성에서 손꼽히는 ICT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다. 135년의 정보통신 역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쉽게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정보통신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기통신 100주년을 맞을 때 전국적으

100주년 때 전사적 자료수집 운동 일제시대 유물 등 7500점 모아 박물관 있었지만 임대로 폐관

역사 평생 연구하는 인력풀 필요 자료 정보 인증할 종사자들 고통 함께 만들 시간 얼마 안 남아



김부중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이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로 자료를 수집하고 동대문 흥인시장이 나 일제시대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제품 등의 기기를 수집한 것이 7500점 정도 된다. 우리나라를 ICT 강국으로 만든 국산 기업들의 발자취가 녹은 1962년부터 1차부터 5차까지 통신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자료라 IT 강국의 살아있는 증인인 셈이다. 이를 가지고 1993년에는 용산전화국에 정보통신박물관을, 1996년에는 남대전에 충남정보통신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당시 홍수 때문에 용산전화국은 실내까지 물에 차서 부수고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폐관됐고, 남대전 전화국도 새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느라 박물관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 후로도 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내던져졌다.”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

“상당히 안타깝다. KT 등 정보통신 기업에서도 자료관리가 폐지되고 정부에서도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다. 역사 편찬이나 자료, 역사적 가치 물품 등 발굴, 보존, 전시 등 조사연구 분야는 행정업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중 건설교통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철도박물관, 교통박물관, 항공박물관 등이 마련돼 있고 산업자원 또한 전기박물관과 석탄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 정보통신 역시 대표적인 SOC이고, 관련 자료나 유물도 많은데 유독 박물관이 없다.”

-우리가 정보통신 역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에 박물관이 825개나 되고 학예사 등 종사자도 1만7978명에 달한다.

연구원은 1595명이다. 박물관을 매개로 정보통신 역사를 평생 연구하는 인력풀이 있어야 한다. 정부행정이나 기업 업무의 아웃소싱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통신 박물관 개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은 자동화,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소형화·집중화돼 유휴청사나 건물이 많다. 유휴건물들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나 자료에 반드시 어디에 사용됐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이나 제조시기 등의 기록으로는 설명서가 없으면 유물의 가치가 없다. 이는 대학교수도 모른다. 옛날 전화국에서 수리하던 사람들, 통신 기기를 테스트한 사람, 중계기를 운영했던 사람 등 종사자들이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70~80대 고령에 접어들어 안타깝다. 더 늦기 전에 과거 정보통신 실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서를 기록해야 한다.”

-향후 학회 계획이 궁금하다.

“우선 광화문에 있는 전기통신발상지기념탑을 지금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게 하려고 한다. 역사성이 없는 기념탑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발상지기념탑이 위치한 종로구 세종로 공원은 한성전보총국 등 통신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던 역사적 자리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자료의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자료설명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 이 일을 할 사람들이 70~80대라 시간이 얼마 없다.” /김나인 기자 silknj@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자리한 전기통신발상지기념탑.

“부동산 통계 신뢰도 올린다” 감정원, 조사표본 46% 확대

주택가격 동향조사 예산 22.9% ↑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

김현미 장관 “통계개선 용역 진행”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까이 늘린다고 발표했다.

19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 (15억4200만원) 늘린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감정원은 내년 예산을 국토부 예산

〈최근 5년간 주택가격관련 예산·표본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55억	55억	58억800만원	60억5600만원	67억2600만원	82억6800만원
주간 표본수(아파트)	7,000가구	7,004가구	7,400가구	8,000가구	9,400가구	13,720가구
월간 표본수(아파트, 연립, 단독)	25,260가구	25,260 가구	26,674 가구	27,502가구	28,360가구	29,110가구

/연합뉴스

안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합 준비에 들어갔다.

◆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확대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한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지난해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주간

조사 표본의 증가 폭(46.0%)은 더 두드러진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국감서 주간단위 통계 지적

그러나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

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 나왔다.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당시 국민은행의 호가 위주 조사 방식이 시장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 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넘겼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

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 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도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1주일 동안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표본 아파트가 적지 않는데, 주간 동향을 지수화하는 것이 정확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감 질의에서 “(주택) 실거래가격은 한 달 단위로 신고하는데, 조사기관의 가격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감정원의 주간동향이라도 발표 방법을 달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통계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개선 방향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외인 투기성 주택매입 ↑... 규제 근거도 없어

국토교통위 김희재 의원

외국인 주택보유현황 통계 전무

올해 코로나 확산에도 매입 27% ↑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2만3167가구, 매입 금액은 총 7조 672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도 5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 규제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기간보다 27%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515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나 늘어났고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한 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 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수은 보유 KAI 주식, 4455억 손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용진 의원 “자본건전성 우려 상황”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이 하락해 지난해 445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KAI의 최대주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KAI 주식 취득가(6만456원)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판단한 사용가치(4만3152원)를 뺀 금액을 반영해 4455억원을 손상차손액으로 반영했다.

KAI 주가는 대출사기·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감리, 검찰

조사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 작년 12월 말 종가는 3만4050원까지 떨어졌다.

수은의 평균 취득가(6만456원)의 56% 수준까지 하락한 셈이다.

고 의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 증가, 대출만기 연장 등 수은의 자본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은은 KAI의 최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수은 퇴직자들, 돈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

장혜영 의원 “이해충돌 소지 있어”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 조 원의 자금을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기업은 만성적자·유동성 위기·인수합병(M&A) 등 자금 수요가 있는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제주항공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퇴직자 3명은 최고 수 조 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재취업했다.

수출입은행 등기임원이었던 전 상임이사, 전 전무이사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기임원 취임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취업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여신



한국수출입은행

을 지원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마등기 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이던 퇴직자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최근 각각 만성적자·유동성 위기·M&A 등으로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승인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한다.

/나유리 기자 yu115@

수출초기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티고 폐업

김두관 의원 수은 지원방안 지적

수출을 처음 시작한 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 수출업을 시작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49.2%다. 수출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출초기기업 대다수는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폐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초기 기업들은 2년 생존율 32.7%, 3년 생존율 24.7% 을 보이다 4년생존율은 19.8%, 5년생존율은 17%로 줄어 수출을 시작한 10개 기업중 8곳 이상이 폐업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약 24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입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단순히 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는 데에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제도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차기 KB국민은행장 이번주 확정... 허인 現행장 연임 유력

이번주 대추위 열고 후보 추천
코로나 영향 변화보단 안정 예상
수익성·리스크 관리 성과 이뤄

차기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허인 現행장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단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3년간 경영성과가 탄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빠르면 이번 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허 행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까지다. 임기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주 중으로 차기 행장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추위는 KB금융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지주 사외이사 3인과 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해관계자인 허 행장은 대추위서 빠지고 4



허인 KB국민은행장.

명이 논의해 결론을 내게 된다.

대추위가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 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어 자격검증 등 심사를 진행한다. 행추위는 국민은행 사외이사 5인이다.

윤 회장은 3연임이 결정된 이후 '계열사 CEO 인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열사 경쟁력과 그룹 전체의 시너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허 행장의 재연임이다.

허 행장은 지난 2017년 11월 은행장으로 선임됐고, 지난해 한 번 연임에 성공했다. 당초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임기로 여겨졌던 '2+1년'을 다 채우면서 카드나 증권 등 KB금융의 다른 계열사 CEO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교체보다는 재연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먼저 허 행장은 수익성은 물론 리스

크 관리에 있어서도 성과를 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펀드까지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국민은행은 피해갔다.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허 행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 패러

다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해 왔다. 뱅킹앱 고도화를 비롯해 KB모바일인증서 출시, 디지털 창구 전환, 손으로 출금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 캄보디아 소액대출기관인 프라삭 인수에 이어 올해 4월에는 미얀마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올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추가 지분 인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금융벨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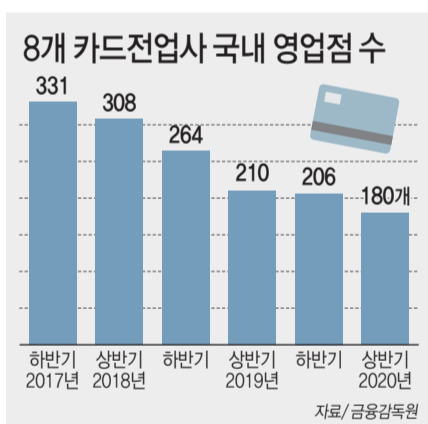
은행 내부적으로도 허 행장의 재연임에 대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서도 특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그룹 내에서 은행장은 차기 회장 자리로 인식되는 만큼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장이 교체될 경우 그룹내 권력이 신임 행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사 영업점 2년새 '뚝'... 200곳도 안돼 청소년 전용 '카카오뱅크 미니'로 10대 공략

8개 카드사 영업점포 전년비 14% ↓
현대카드 영업점 전년비 22곳 줄어



▲2018년 상반기 308개 ▲2018년 하반기 264개 ▲2019년 상반기 210개 ▲2019년 하반기 206개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말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점포수가 200개선을 유지했지만 올 상반기 들어 이마저도 무너진 것이다.

/이영석 기자 ysl@

특히 현대카드의 영업점 축소가 두드러졌다. 현대카드의 올 상반기 전국 영업점 수는 총 31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개(41.51%) 줄었다. 2년 전인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89개의 영업점을 유지했으나 2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기간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도 각각 8개(50%), 3개(8.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업점 축소배경으로 비대면·온라인 영업의 확대가 꼽힌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온라인 발급 비중이 확장하면서 온라인 영업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올 초부터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지자 비대면 영업 확산세가 더욱 가속화한 것이다.

1일 이용 한도 30만원
모든 ATM 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 공략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사진)'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개설하는 '미니'는 입금과 이체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간편이체 과정에서 만나는 메시지 카드는 '미니'만의 감성 답아 귀엽고 재치 있는 문

/안상미 기자



구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미니'는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 '미니'를 개설하면 5종의 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니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미니'가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韓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A+'

카드업계 최초

KB국민카드가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카드업계 최초로 지배구조 부문 'A+'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A' 등급을 받으며,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카드업계에서 유일하게 'A+' 등급을 획득했다.

KB국민카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워크숍을 통

해 회사 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외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 활성화와 이해도 제고에 힘 쓰는 등 이사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KB금융지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B금융그룹의 체계적인 지배구조 정책과 전략이 이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점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영석 기자 ysl@

IBK기업은행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IBK기업은행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인 'IBK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무,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은 물론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분석해 최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상담도 진행한다.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GS25와 적금 이벤트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서 응모

SC제일은행이 'GS25와 함께하는 적금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다. 퍼스트가계적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연 1.0%, 매월 불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GS리테일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응모하고, 퍼스트가계적금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선착순 350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SC제일은행 마케팅 정보제공 동의를 유지하면 오는



11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 12월 GS Fresh Mall 할인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2021년 3월에는 GS25 모바일 상품권(1만 원)을 지급해 모두 2만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및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신규 고객이 이번 제휴 이벤트를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상품권(각 25만원)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너도나도 가맹택시 도전장... 들썩이는 모빌리티 시장

쏘카, 이달 말 '타다 라이트' 출시
SKT, 우버와 손잡고 본격 진출
업계 1위 '카카오T' 추격전 시작
데이터 활용 이점에 시장 확장

가맹택시 사업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쏘카와 SK텔레콤까지 시장 잠전을 예고하면서 가맹택시 1만대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가 선도하는 가맹택시 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이달 말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타다라이트'를 출시한다. VCNC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현재 드라이버를 모집 중이며, 서울과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점차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타다 앱을 통해 기존 고



카카오 T 블루 차량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급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타다는 4월 기준 172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타다 라이트를 활발하게 서비스할 경우 가맹 택시 시장에서 단숨에 경쟁 상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VCNC는 올해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종료하며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쏘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동 감소와 타다 베이직 종료에도 불구하고 최근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오르며 모빌리티 사업자로의 위상을 증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T맵 플랫폼과 T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해 연내 우버와 합작법인(JV)인 'T맵모빌리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T맵모빌리티 자회사로 'T맵택시-우버택시 합

작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우버는 T맵모빌리티에 5000만 달러(약 575억원)를 투자하고, T맵택시-우버택시 합작사에 1000만 달러(약 1150억원)를 투자한다. 택시 호출 합작사에 대해선 우버 51%, T맵모빌리티 49%의 지분율을 갖는다.

업계는 1200만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보유한 SKT의 'T맵'을 바탕으로 양사가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이동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도·차량 통행분석 기술과 글로벌 1위 승차 공유 회사 우버의 노하우가 만나 선보일 호출 사업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버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와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택시 호출 사업 외에도 양사는 렌터카, 차량공유, 전동킥보드, 자전거, 대리운전, 주차 등을 모두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올인

원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내놓을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가맹택시 선두주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카카오 T 블루'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각각 '1만대가 넘는 규모로 가맹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낮은 카풀 등 새로운 사업보다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적어 모빌리티 업계가 가맹택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택시는 택시 면허를 살 필요 없이 기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가맹비와 교육비, 풀당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 시그니처, 伊명품가구와 '프리미엄 협업'

몰테니앤씨와 마케팅 업무협약
프로모션·제품 등 전방위 협력

LG 시그니처가 이탈리아 명품 가구를 만난다.

LG전자는 16일 몰테니앤씨 S.P.A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몰테니앤씨 S.P.A는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몰테니앤씨와 주방용 가구 브랜드 다다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23개국에 5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서울 논현동에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전시, 프로모션뿐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LG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 김진홍 전무(왼쪽)와 몰테니그룹 CMO 줄리아 몰테니가 비대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앞서 LG전자는 최근 이탈리아 몰테니뮤지엄에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전시하며 프리미엄 TV와 명품 가구 조화를 선보인 바 있다. 다음달 프랑스 파리 에 문을 여는 몰테니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설치할 예

정이다. 몰테니그룹 CMO 줄리아 몰테니는 "몰테니앤씨의 프리미엄 가구와 LG 시그니처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갖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에쓰오일 스타트업 투자로 탄소배출권 확보

정수설비 업체 글로리엔텍 투자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에쓰오일이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에 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체인 '글로리엔텍'에 투자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연간 1만3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향후에도 에쓰오일은 글로리엔텍과 협력해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CD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에쓰오일의 이번 투자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후원해,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를 회사의 당연한 과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에쓰오일은 전사 탄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실제 공정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기존 울산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약 6%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8년에는 울산공장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를 벵커-C에서 LNG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LG화학, 100%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가공 후에도 투명... 세계 최초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19일 독자기술 및 제조공법을 통해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유연성(신율)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개발한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의 생분해성 소재다. 단일 소재로는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소재다.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경우 물성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해 다른 플라스틱 소재나 첨가제를 섞어야 해, 공급업체별로 물성과 가격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LG

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단일 소재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용도별 물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핵심 요소인 유연성은 기존 생분해성 제품 대비 최대 20배 이상 개선되면서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 생분해성 소재가 주로 쓰이는 친환경 포장재 업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 혼합 소재의 특성상 불투명한 포장재 제품 등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닐봉투, 에어캡 완충재, 일회용 컵, 발포 제품 및 마스크 부직포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이 신소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분해성 핵심 물질에 대



LG화학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의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한 고유의 원천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현재 선제적 출원을 통해 생분해성 중합체, 조성물, 제조방법 등에 대한 총 25건의 특허를 국내외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화학 미래기술연구소는 생분해성 핵심 물질의 분자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중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 소재와 차별화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K매직, 자가관리 '직수정수기' 판매 순항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 돌파

SK매직은 지난 8월 중순 출시한 자가관리형 정수기 '스스로 직수정수기(사진)'가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9월 한달 간 스스로 직수정수기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판매량이 675% 증가하는 등 '올인원 직수정수기'와 함께 SK매직의 주력 모델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수정수기 출시 후 SK매직의 정수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성과도 얻었다.

또, 지난 6월 조사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판매량이 250% 증가했던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도 9월 기준으로 224% 늘어나는 등 정수기 전체 판매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SK매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자가관리형 제품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한편, 실내 활동 증가와 홈카페 트렌드 확산 등도 판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스스로 직수정수기'는 자동 살균 기능인 '듀얼 안심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전문적인 방문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직수관 전해수 살균'과 '코크 UV살균' 등이 정수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돈보이는 금융생활

쉽고 편리한 금융생활 돈보기, 우리WON뱅킹



WON하는대로
우리WON뱅킹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른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2 준법감시인-1840 심의필(유효기간 : 2021.08.31)

전기차 잇단 화재, 억울한 배터리... 발화원인 오리무중?

K-배터리, 안전성 논란에 고전 원인 파악불가... 정밀조사 진행 “배터리 문제로 보기엔 시기상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이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발목을 잡혔지만, 아직 배터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기엔 선부르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는 배터리를 원동력으로 하는 전기차에서 연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배터리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자사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의 화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K-배터리’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GWh로,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셀(파우치 타입).

동기 전기차 배터리 총량(64.7GWh)의 24.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6.3%와 4.2%의 점유율을 차지해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한국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만 모두 35.1%로, 전년 동기(16.2%)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배터리’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

면 최근까지 현대차의 코나는 국내 10건, 해외 4건 등 총 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8일 결국 7만 7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을 결정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해당 화재 사건 3건을 조사 중이며, BMW와 포드는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종에 대해 리콜을하기로 했다. 현대차 코나와 GM 볼트에는 LG화학, BMW의 PHEV와 포드의 쿡가 PHEV에는 삼성SDI의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차량 충전 완료 후 코나 전기차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를 유력한 후보로 꼽은 바 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도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은 당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 완성차 업체 광저우기차(GAC)의 ‘아이온 S’ 모델에서 총 3건의 불이 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배경에는 전기차 내에서 열이 나는 곳이 배터리밖에 없고,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이 배터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자리한다. 하지만 최초의 발화 지점과 화재의 근본 원인을 구분해서 봐야 하며, 이러한 전제 아래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재 원인은 다양하다. 불이 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배터리가 맞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화재 시작점과 발화 원인을 완전히 따로 두고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배터리가 화재의 시작인 경우, 배터리가 원인이라는 것으로 아주 단순화되고 있지만, 별도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화재의 시작이 배터리일 때, 그 원인을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에서도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배터리만의 문제인지 혹은 배터리 팩이나 관리의 문제인지 등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끼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된 것이 아니다. 완성차 업체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쌍용차, ‘올 뉴 렉스턴’ 사전계약 실시

사전계약시 계약금 10만원 면제
추첨 통해 임영웅 키 홀더 등 제공

쌍용자동차가 다음달 4일 출시하는 렉스턴 부분변경 모델의 사전 계약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전계약하는 구매자는 계약금 10만원을 면제받고 추첨을 통해 트라기수 임영웅 음원 발매 기념 키 홀더와 무릎 담요 등을 제공받는다.

쌍용차는 신형 렉스턴의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를 키우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적용해 렉스턴 특유의 위용을 강조했다. 실내는 사용자가 3가지 모드로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클러스터)이 탑재됐다. 쿨링 인터리어도 업그레이드됐다.

8단 자동변속기와 차동기어 잠금장치(LD)를 적용해 험로 주파 능력을 끝



쌍용차 올 뉴 렉스턴 정측면.

어울리는 등 주행 성능도 개선됐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전자식 레버 채택과 더불어 새로 디자인된 센터콘솔로 공간 활용이 더욱 편리하고 여유롭다. 또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방향 제어를 보조하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이 적용됐다.

가격은 럭셔리 3700만~3750만원, 프레스티지 4150만~4200만원이다. 올 블랙 디자인의 ‘더 블랙’ 트림은 4950만~5000만원이다.

쌍용차는 다음달 4일 광고 모델인 가수 임영웅의 신곡 쇼케이스와 함께 신형 렉스턴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비대면 학습 멘토링 ‘랜선 야학’ 운영

서울시교육청과 원격 교육 협력

KT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원격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랜선 야학’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랜선 야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학생과 중학생의 마음을 담아 KT 기술로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멘토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된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 해소와 대학생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5만1021명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격 수업 이후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는 비율은



학생이 KT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멘토와 랜선 야학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KT

80%에 달했다.

랜선 야학은 멘토 1명이 멘티 3명을 담당하는 4인 비대면 그룹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된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은 국·영·수 등 기초 학력 과목을 중심으로 희망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대학생 멘토들은 KT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주 4시간씩 중학생 멘티를 만난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금호타이어, 타이어 4본 월 6000원 렌탈

또로로로 렌탈 서비스 실시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렌탈 서비스 ‘또로로로 렌탈’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한다.

‘또로로로 렌탈’은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론칭한 서비스로, 렌탈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비에스렌탈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

가입 고객은 소형 차종부터 대형 차종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종까지 타이어 총 4본을 최저 월 6000원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24개월, 36개월로 고객의 운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고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기사가 방문해 차량을 직접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 주는 금호타이어 타이 어프로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교체대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SK렌터카 ‘EV 올인원’ 상품 출시

SK렌터카가 전기차 충전 요금까지 책임진다. SK렌터카는 19일 ‘EV 올인원’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EV 올인원은 월 렌탈 요금에 충전료까지 포함한 상품이다. 계약기간 중 약정 거리에 있는 한국전력과 환경부 충전기에서 무료로 충전을 할 수 있다. 충전소는 전국에 7000여개 있으며, 전국 충전소 중 80%에 해당한다. 전용 충전 카드로 결제 없이 사용자 인증만 하면 된다.

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니로EV와 르노 조에 EV 등 2종이다. 가격은 각각 월 68만3200원, 59만7200원이다.

/김재용 기자 juk@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 미래상 제시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AI기술 교류의 장인 ‘누구 컨퍼런스 2020(이하 누구 컨퍼런스)’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3회차를 맞은 ‘누구 컨퍼런스’는 SKT가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자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진행된다.

SKT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SKT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AI가 고객의 실생활 및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SKT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모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누구 컨퍼런스 2020’ 참가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의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 12일 발표한 ‘T전화×누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한 ‘누구 케어콜’ ▲시니어 전용 서비스인 ‘누구 오판’ ▲그룹 영상통화 서비스 ‘미더스’ 등 다양한 AI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콘텐츠 왕국’ 카카오, 언택트 질주

metro 관심종목

카카오

톡·페이지·TV 등 콘텐츠 다양 서비스 이용자 충성도 강화될 듯

3분기 영업이익 1005억 예상 공격 마케팅 중장기적 긍정적

디지털 금융산업 외형 확장 카뱅-카카오증권 시너지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카카오가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가 됐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투, 카카오투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4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6일 35만7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는 2020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조321억원, 영업이익 100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대비 각각 31.8%, 70% 증가할 전망이다.

견조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페이, 모빌리티, 픽코마(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 등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여파로 시장 컨센서스(1175억원)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공격적 마케팅은 투자의 일환이라 설명이다.

〈증권사별 카카오 목표주가〉

IBK투자증권	49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6만원
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	45만원
하나금융투자	44만원
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	43만원
교보증권·SK증권·키움증권	42만원
유안타증권	41만원
유진투자증권	40만원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고성장 기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격’으로서 바람직한 투자의 일환”이라며 “투자 측면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늘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가치악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IBK투자증권이 49만원으로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46만원), 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45만원), 하나금융투자(44만원), 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43만원), 교보증권·SK증권·키움증권(42만원), 유안타증권(41만원), 유진투자증권(40만원) 등의 순이다. 모두 40만원대로 적정가격을 조정했다.

카카오의 현 주가수익비율(PER)은 86.2배로 미국 빅테크기업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상태다.

증권업계는 카카오의 4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77% 성장해 실적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페이, 내년에는 모빌리티 법인의 흑자전환이 이어져 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나타난 주가 조정은 건전한 흐름”이라며 “양호한 실적 성장에 따라 주가 상승세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사업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증권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카카오는 기존의 카카오 생태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산업으로 외형을 넓혀나가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펀드는 올해 2분기 순이익 268억원, 상반기 누적 순이익 453억원을 달성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MAU(Monthly Average User)는 1100만명을 넘어서 은행권 모바일 앱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역시 출시 5개월 만에 증권계좌 170만개, 펀드 투자 월 3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투, 카카오페이, 게임, 멜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카카오 기반 테크핀 서비스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예탁결제원 휴면성 증권투자자산 보관현황〉

(2020년 9월 말 기준)

구분	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주식	대금	
보관현황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375억원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실기주과실주식·미수령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에 한하여 집계 (미수령주식의 경우 법인주주는 제외)

예탁원 “664억 휴면 주식 찾아가세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자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0월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실기주,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실기주과실,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 ▲미수령주식,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휴면 금융자산의 주인을 찾아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활동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자산 찾아가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자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 3028명)다.

/박미경기자

안면인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편리성·보안성 강화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을 비교·검증하는 실명확인 절차로 올해 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은 계좌 인증 또는 상담원과 영상통화로 실명을 확인했다. 계좌인증방식은 인터넷뱅킹의 어려움이 있고, 영상통화방식은 모르는 사람과 영상으로 통화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실명확인이 되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안면인식기술에는 실제본인이 촬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감지(Liveness Detection) 테스트’를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텝스(STEPS)’와 ‘스마트엠(Smar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코로나 장기화... 전자의무기록 수요 급증

(EMR)

株라쿨라의 종목

의료시스템 전문 | 이지케어텍 |

3년 연속 글로벌 EMR 점유 10위권 신규의료정보시스템 상용화 본격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며 ‘이지케어텍’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 및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며 비대면 진료시스템과 EMR(전자의무기록)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는 첨단 의료장비, 본원, 위성병원 등 모든 병원 시스템을 연결하는 EMR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지케어텍은 국내 대형 병원 EMR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 현재 13%인 해외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케어텍은 지난 2001년 서울대학교 병원이 설립한 의료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최근 3년 연속 글로벌 EMR 시장 점유율 10위권에 든 기업이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10위권 업체 대부분이 미국, 유럽 등 의료 IT 산업 선두주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시장에서 이지케어텍의 파트너십 확대에 의미

〈이지케어텍 2020년 대표 수주 현황〉

구분	제공서비스	수주 총액	수주 기간
제주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99억6000만원	2021년 8월
충북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136억원	2020년 9월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정보시스템	64억7000만원	2024년 9월
사우디 국가 방위부병원	진단검사의약시스템	300만 달러(약 35억원)	2020년 12월
동국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통합 HIS 구축	108억 2000만원	2021년 4월

/이지케어텍, 리서치알음

를 부여할 만 하다”며 “의료 분야와 ICT 기술의 융화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EMR 시장 또한 연평균 7.1% 상승해 2026년에는 380억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책사업 선정은 이지케어텍의 EMR 시스템을 표준안 기준으로 설정 시 타 EMR 업체 대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국내 FHIR 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어 다양한 사업모델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규의료정보시스템 상용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이지케어텍은 ‘헤민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EDGE&NEXT’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일체형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이다.

최 연구원은 “‘EDGE&NEXT’ 클라우드는 현재 국내에서 네이비비즈니스 플랫폼(NBP)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2007년부터 이지케어텍과 파트너십을 맺어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플랫폼 협력이 예정돼 있다”며 “동남아 및 일본 등의 시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부터 해외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올해 이지케어텍의 영업이익은 9억원, 매출은 704억원으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내년 영업이익은 364.4% 늘어난 44억원, 매출은 5.5% 늘어난 743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646원에 주가수익비율(PER) 50배를 적용한 3만2000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다.

/박미경 기자

NH투자증권 초고액 자산가 위한 PB서비스

NH투자증권은 30억원 이상 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를 위한 ‘프라이빗뱅크(PB)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세무, 부동산 컨설팅, 고객 기업의 종합 금융 솔루션 서비스(기업공개, 증자 등) 등 재무적·비재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영업전략본부 내에 PB서비스팀을 별도 신설했다. 서비스팀은 각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배치되었으며, 금융상품·세무·부동산·컨시어지(Concierge)와 투자은행(IB) 담당자로 구성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PB서비스는 재무적인 자문(Advisory)·법인 컨설팅

서비스와 비재무적인 마케팅 서비스로 구분된다. 자문서비스는 상속·증여·절세 등 세무 상담과 부동산 종합 컨설팅·사업용 부동산 투자자문을 담당한다. 고객의 요청 시 자문 컨설팅 팀의 방문 또는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

법인 컨설팅의 경우는 기업승계는 물론 국내 리그테이블 1위 NH투자증권 IB부문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주 기별 종합 금융 솔루션 서비스(기업공개, 인수합병, 증자 등)를 제공한다.

각종 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컨시어지 개념의 멤버십 서비스는 고품격 세미나와 예술, 음악, 다이닝, 골프 등 다양한 주제로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범기 기자

‘데이터창고’ 유통사, 금융사와 新 수익모델 발굴 나선다

GS리테일-신한카드

기업 대상 맞춤형 데이터 상품 개발

BGF리테일-KB국민카드

CU 점포별 맞춤형 운영 전략 지원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이 유통과 소비 데이터를 결합한 수익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GS리테일은 카드업계 취급고 1위 신한카드와 손잡고 업계 최초 유통과 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 관련 수익 모델 발굴에 나섰다.

양사는 ▲유통과 카드 소비 데이터가 결합한 데이터 개발 ▲수요 기업/기관 대상 맞춤형 데이터 결합 상품 개발 및 판매 ▲유통X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일평균 500만명 이상 고객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오른쪽)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GS리테일



/BGF리테일

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GS리테일의 국내 최대 규모 판매 데이터와 통합 회원수 2400만명의 업계 최대 신한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한 유통X카드 데이터가 결합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련 데이터는 필요한 수요 기업에게는 안성맞춤 데이터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단순 판매 수량과 점유율 정보만을 보유했던 기업은 소비

가 이루어진 카드 데이터가 결합되어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사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도 추가로 전개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KB국민카드와 비즈니스 협업을 나섰다.

BGF리테일은 KB국민카드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월 단위 구동형 데

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전국 1만 4000여 개 CU의 운영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점포마다 맞춤형 편의점 운영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가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고효율의 편의점 운영 전략을 도출하고 차별화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실생활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실제, CU는 월평균 약 1억 5000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소비채널로 융복합 시대의 빅데이터 창고로 불리며 최근 관련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최근 금융보안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CU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편의점 빅데이터를 유통 업계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 연령, 시간대, 상품별 매출 등 총 20여 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CU를 통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들은 금융, 제조, IT, 이동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들과 융합해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점차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편의점과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비교>

/과기정통부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처리절차	시험(지정시험기관)→심사→적합인증	시험(지정시험기관 등)→적합등록
처리기간	5일 이내	즉시
제출서류	6종	2종
수수료	16.5만원	5.5만원

오늘부터 IoT 융합기기 출시 절차 간소화

기업, 적합성평가 비용·부담 감소
무선모듈 제거·교체시 변경 신고
전파 인증, QR코드 표시 가능

방송통신기자재 출시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인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인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 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업체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의 경

우,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 특성상 전자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전화기, 팩스 등 유선 단말장치 기기는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스타필드 코엑스몰, 증강현실로 길 찾는다

SKT, 미래형 유통매장 구축 협약
할인쿠폰 주요 지점별 AR 콘텐츠
화면서 매장 간판 클릭시 정보 확인

복잡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프라퍼티, MAXST와 함께 5G MEC 기반 실감형 AR 콘텐츠 서비스 제공 및 미래형 유통매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AR을 코엑스몰 등 플랫폼에 연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같이해 마련됐다.

4사는 고객 집객 효과가 뛰어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AR플랫폼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2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일 AR플랫폼은 AR내비게이션 형태로 제공된다. 우선 이용자들이 서비스 지역 내에서 원하는 장소



MAXST 박재완 대표(왼쪽부터), 신세계아이앤씨 손정현 대표, 이창승 신세계프라퍼티 마케팅 담당, SK텔레콤 최관철 기업사업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나 대상을 검색하면 증강현실로 길 찾기 안내가 제공돼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주요 표지판의 다국어 언어변환 및 정보 시각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화면상 매장의 간판을 클릭하면 해당 매장의 상품정보 확인은 물론 관련 3D AR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변 매장의 주력 상품, 프로모션 내용, 할인 쿠폰 주요 지점별 AR 콘텐츠도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제작

한 AR콘텐츠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된다.

각 사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5G AR 콘텐츠를 제공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최첨단 미래형 유통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SKT는 이번 협력에 ▲5G MEC 역량 ▲5G 앱 서비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술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AR 플랫폼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포뱅크, 개인투자조합 1호 IR 성료

총 6개 스타트업 선정

인포뱅크가 16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이후 첫번째 투자라운드, 역삼동 이앤인베스트먼트에서 IR(기업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IR을 위해 벤처캐피탈 17개사를 초청했으며, 초청된 VC(벤처캐피탈)들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멘토링 및 투자유치의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투자 단계는 프리 시리즈A 및

시리즈A 단계로 진행되며, 개인투자조합 1호 기업을 중심으로 총 6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의미있는 매출 규모와 실적을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들로 ▲3D 기술 기반의 Z세대 패션매거진 ‘에프앤에스홀딩스’ ▲10만명의 유튜브 데이터가 반영된 인공지능 AI 기반 인플루언서 검색엔진 ‘버즈앤비’ ▲메디컬 AI 전문 스타트업 ‘웨이센’ ▲글로벌 광고 최적화 플랫폼 ‘가제트팩토리’ ▲전기자동차 열관리 솔루션을



인포뱅크가 16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이후 처음으로 역삼동 이앤인베스트먼트에서 IR(기업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 /인포뱅크

제공하는 ‘MH기술개발’ ▲개인별 맞춤형 기능성 갈창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 건강 전문 브랜드 ‘나인투스식스’ 등이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천지개벽 청량리! 서울 동북권 중심으로 떠오르다!

급부상하는 화제의 현장으로 가다!

- ▶ 전 세대 복층 오피스텔 설계가 적용돼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우수하고 IoT홈네트워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콕 세대에 딱 맞춤
- ▶ 주택자금 조달계획서가 필요없음, 부담없는 자금조달로 탄력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실현

① 동원건설산업 동원 베네스트 2차분 /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3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국제청은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말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8월 12일부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취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입주권·분양권 등도 포함한다.

국제청이 짚은 부동산 관련 주요 상담사례 중 첫 번째 사례다.

Q.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돼 2주택자일까?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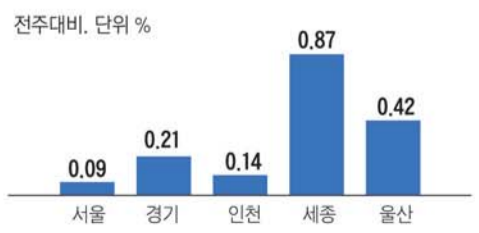
Q.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이상 망서릴 시간 없다!
전셋값, 오르고 또 오르네...
서울 63주째 수도권 57주째 상승

'전세 물건 실종' 탓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값이 끝없이 오르는 중.

9월 첫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전셋값 상승세는 소형이나 저렴한 아파트가 주도했다. 서울에선 주로 강북권이다. 마포구(0.15%)는 아현·공덕·도화동 등지의 인기 단지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올랐다. 성북구(0.12%)는 길음뉴타운이나 종암동의 신축 단지가 많이 올랐다. 교통, 학교, 도시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신도시 개발에 뒤처져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전통적인 도심이 도시재생의 효과와 잇따른 재평가에 힘입어 유례없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로 금리 시대, 아파트 규제 이어지며 소형 오피스텔 동대문 베네스트 2차 반사 이익

제로금리 기조 국면 장기화로 수익형 부동산의 반사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권 상품 대신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입지 조건 및 개발 호재가 뛰어난 오피스텔임대 투자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0.25%p 낮춘 0.5%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3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면서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마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값 투자 대신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갭투자 방지·법인 소유 부동산 세금 강화 등의 규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6%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 등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규제가 쏟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을 비롯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15만6,0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기록인 14만 4,200건 대비 8%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소멸 위기, 월세 임대수익 보장하는 오피스텔은 함박웃음

수익형 부동산의 미래 가치 향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을 수 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임대차 3법의 핵심 사항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오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부동산 시장 내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언급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전세 니즈가 증가했으나 양도세 및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의 요인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 2년 실 거주 의무 등도 포함돼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치지 않고 오르고 있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9

공실률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핫플레이스 동대문구

% 상승했다. 이는 무려 62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전세 물건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전셋집에 늘려왔던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품귀를 빚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신고의무가 없어 자금 조달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실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했다. 지속되는 추세다. 21차까지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진 가운데 오피스텔은 대출, 세금규제, 청약제도 등 다방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췄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역시 오피스텔 투자가 갖는 메리트다. 정부는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나 상가 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

GTX-B/C 2개 노선 경유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청량리 일대 2차 미래 가치 급등 기대!

동대문 베네스트 2차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호재 때문이다. 서울 청량리 일대에 조성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청량리동·회기동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나후 도시를 살리는 작업이다. 유형에 따라 중·대규모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지역과 소규모의 일반근린형, 주거정비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이 있다. 서울 청량리와 회기동 일대는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지역으로 본격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과학기술계와 함께 흥릉 일대(49만 7000㎡)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대상으로도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859억 원 가운데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시설은 '서울 바이오 허브'다. 창업 지원공간, 바이오 연구·실험공간, 글로벌 진출 지원공간, 지역주민 열린공간 등 4개 동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1,689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 예정이다. 이외에 첨단로봇기계가발센터, 흥릉 바이오헬스센터, 흥릉 R&D 지원센터, 지원전략산업 지원주택 등이 포함됐다.

동대문구 내 소형 주거시설의 경우 매물 및 신규 공급 물량 희소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따른 배후수요 강화를 전망 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교통 개발 호재도 눈길을 끈다. 우선선 개통 이슈와 더불어 청량리역 GTX-B(송도-청량리-남양주)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 여기에 C노선(양주-청량리-수

원)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여의도 구간이 약 10분, 의정부-강남 삼성 구간이 약 16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와 시간 단축이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파급력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동대문 베네스트 2차 "1인 가구 특화된 주거 설계로 나홀로 세대 마음 흔든다"

동대문 베네스트 2차의 전용면적은 A타입 21.9㎡(71실), B타입 21.27㎡(90실), C타입 29.22㎡(15실), D타입 35.83㎡(15실), E타입 58.28㎡(15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A타입의 경우 1인 세대에 딱 맞는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B타입은 신개념 주거 트렌드를 적용해 도시적인 감성이 두드러지도록 설계했다. C·D타입은 실속과 여유가 공존하는 스마트 설계로 실거주층 니즈를 충족시킨 것이 강점이다. E타입은 희소성 높은 3Bay, 2룸 구조로 넓은 공간, 쾌적한 거주 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환기 및 통풍이 우수한 소형 오피스텔 사례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대 복층 오피스텔 설계가 적용돼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우수한 것이 강점이다.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개방감, 공간 활용성 등으로 선호도가 높다. 이는 공실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양한 특화 수납공간 및 불박이장, 최신 트렌드에 맞는 혁신 평면 설계 등도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 자리한 다채로운 생활 편의 시설도 주목할 요소다. 롯데백화점, 비트플러스, 동대문 패션타운, 정릉천, 천계천, 대형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통시장(약령시장, 경동시장), 고려대 안암병원, 우신향병원, 시립동부병원 등이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동원 베네스트 2차 분양홍보관은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약 후 방문 시 대기 필요 없이 바로 상담자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방문 예약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증정된다.



광군제·블프·코세피 앞둔 'K-뷰티'... 실적상승 기대감

〈블랙프라이데이·코리아세일페스타〉

LG생활건강
‘후·숨·오후’ 중심 인기상품 준비

애경산업
AGE 20's 에센스 팩트 등 주력
티몰전용 기획상품 세트 구성중

G마켓·옥션·스마일배송'
버즈비·더샘 등 신상제품 특가



후 천기단 화현 세트 / LG생활건강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광군제를 비롯한 대규모 세일 시즌을 앞두고 뷰티업계가 본격 판매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소매 판매가 소폭(3.3%) 상승하며 중국 최대 쇼핑 기간인 광군제 및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한 판매 기회가 눈에 띈다.

LG생활건강은 광군제 날인 11월 11일 전에 중국 온라인쇼핑몰 티몰(Tmall)에서 관련 마케팅을 적극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주요 화장품 브랜드인 ‘후’, ‘숨’, ‘오후’ 등을 중심으로 브랜드별 인기 제품과 특별 기획제품 등을 준비하며 광군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후’의 경우 중국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천기단’ 세트와 대표 에센스 제품으로 잘 알려진 ‘비첩 자생

에센스’ 등을 전면에 내세워 관련 행사를 꾸리고 있다. ‘천기단’ 세트는 지난해 광군제에서 전년 대비 298% 증가한 25만2000여세트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며 티몰 기초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후’는 지난해 광군제 매출이 전년 대비 208% 신장하며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에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만큼 올해도 주력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주요 제품으로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 루나 롱 래스팅 틱 컨실러 등을 구성 중이다. 이를 필두로 광군제 티몰 전용 기획 및 콜라보세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TOP급 왕홍(중국서 온라인과 SNS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난해 광군제 행사일에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프레스룸에서 회사 관계자가 글로벌 판매 현황을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플루언서)과 애경산업 직원의 라이브 방송 ‘AK LIVE’도 계획되었다.

애경산업의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는 지난해 2019년 광군제에서 티몰 내 B B크림 부문에서 판매 순위 1위로 2년 연속 판매 순위 1위 달성했으며 35만9000개를 판매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인해 작년 티몰 국제 애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전년 대비 371% 성장한 바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세계 온라인 쇼핑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인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으로는 G마켓, 옥션 ‘스마

일배송’이 인기 뷰티 브랜드 15개 신규 입점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월간신상뷰티X스마일배송’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버즈비, 더샘 등 인기 화장품 브랜드의 신상을 특가로 선보이며, 브랜드별 중복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 ▲버즈비 틴티드 립밤 ▲더샘 힐링 티가든 티트리 클렌징 워터 ▲에스까다 듀얼 마스크라 롱엔볼륨 ▲비쉬 히알루론 앰플 수분크림 50ml ▲네오젠 리얼 시카 패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메이크프렌 ▲정샘물 등 다양한 스킨케어, 메이크업 추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스마일배송관은 10월 ‘월간신상뷰티’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매달 새로

운 특가 뷰티 아이템들을 선보이기에 다음달에도 이어진다.

한편,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는 행사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인 1084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전년과 비교하면 4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제조사는 700여개사에 이르며 여기에는 대표 소비자인 화장품 업체가 대거 포함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유통사에서 주로 참여를 하고 그 중에 행사 품목으로 제조업체의 물품이 들어간다.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주요 소비재별, 업체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지난 2019년 광군제에서 티몰 내 BB크림 부문에서 판매 순위 1위를 달성했던 애경산업의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제품. /애경산업

제지업계, 코로나19에 매출 ‘고공행진’

과자·치킨 등 포장재로 백판지 쓰여
온라인 음식거래 등 늘어 매출 급증



백판지로 포장된 식품과 위생용품 이미지. /깨끗한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자 제지업계가 활력을 찾은 모습이다. 음식 포장 용기에 사용하는 백판지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인쇄용지 수요 하락세에 침울하던 제지업계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판지 업체의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백판지란 과자, 치킨, 피자, 농산물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 종이 제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온라인 쇼핑에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올해 1~7월 누적 8조657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 증가했다. 포장 용기의 수요도 늘어나며 백판지 업계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백판지의 주원료인 고지 가격의 하락도 백판지 업체의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보인다. 백판지는 재생펄프인 고지를 이용해 생산한다. 고지 구매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원가의 25~35% 수준에 달해 수익성에 큰 연관성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 정책 강화로 원재료인 고지 가격이 낮아지며 백판지 공급 경쟁이 줄었다”며 “고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제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40%에 달하는 백판지 업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솔제지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억원 증가했다. 특히 백판지 등을 포함한 산업용지 부문은 지난해 상반기 2322억원에서 올 상반기에 259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택배시장 성장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며 음식 포장과 용기 등에 사용되는 백판지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계 2위 깨끗한나라의 성장률도 가파르다.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상반기 108억원의 영업이익 적자와 249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62억원, 당기순이익 252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깨끗한나라는 백판지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요 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 품질의 백판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

갤럭시S21 조기등판?... 내년 2월 출격 준비

삼성전자, 내년 1월 제품 공개 예정
중국 화웨이 신제품 빈자리 공략



트위터 온리크스가 공개한 갤럭시S21 렌더링. /트위터 온리크스

갤럭시S21이 조기 출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 갤럭시S21을 공개하고 1달여 뒤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일정보다 한달 가량 빠른 것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플래그십을 최근 출시한 갤럭시S20 FE와 갤럭시Z플립과 구분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내놓지 못한 상황도 신제품을 조기 출시하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화웨이가 올해부터 미국 무

역 제재로 주요 제품 부품 수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 빈 자리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갤럭시S21 모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 온리크스에 따르면 6.2인치에 플랫 디스플레이 형태로, 카메라 모듈인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가 더 작아졌다. 후면 카메라 돌출을 최소화

했다. 울트라 모델은 옛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후면 카메라를 4개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노트 라인업을 삭제하는 대신 S 시리즈에 S펜을 장착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렌더링에는 S펜을 확인할 수 없다. /김재용 기자 iuk@

티몬, 할로윈파티 기획전... 무료배송 혜택

국내 최초 타임커머스 티몬(대표 이진원)이 다가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다채로운 할로윈 아이템을 선보이는 ‘할로윈파티’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티몬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할로윈파티’ 기획전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집에서 할로윈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코스튬, 홈파티용품, 간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할인쿠폰 이벤트를 비롯해 하나만 구매해도

모두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행운의 카드뽑기’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 할인쿠폰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장 중 하나를 뽑아 당첨되는 방식으로, 15일부터 24일까지는 1회차, 25일부터 31일까지는 2회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티몬 앱에서 ID당 회차별 각 1회씩 참여 가능하다.

할로윈 파티의 필수품인 이색 코스튬도 다양하다. 전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파티복, 가면, 망토 등을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블랙야크키즈 ‘원더 판타지 다운’ 출시

블랙야크키즈가 여아용 ‘원더 판타지 다운(Wonder Fantasy Down)’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19일 전했다.

‘원더 판타지 다운’ 컬렉션은 이번 겨울 블랙야크키즈가 선보이는 대표 신상 다운재킷들로 구성됐으며, 활동성과 보온성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과 독특한 소재 구성으로 아이의 취향에 따라 코디가 가능하다. 대표 제품 ‘BK차밍M 다운재킷’은 광택 효과가 있는 사이니원단을 사용해 텍스처가 돋보이는 여아 전용 미들 다운재킷이다. /원은미 기자

“8월 재확산 내수 회복 찬물…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제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추진
내수활력 위해 전방위 노력
청년 취업시름 마음 무거워
고용시장 충격 극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일자리 상황도 악화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같은 소비 진작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도 예고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9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선세를 보이던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월 실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9월 기준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해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라며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돼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인도 진출 기업 유의하세요” 공정위, 印경쟁법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발간된 첫 자료로, 경쟁법의 주요 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구 13억2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인도에 연간 10억달러를 투자(2018년 기준)하고 있다.

책자를 보면, 인도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 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방사청 신속획득2차사업 입찰 공고

방위사업청은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12개 과제의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2일간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12개 과제 목록은 ▲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 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 다목적 무인차량 ▲ 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 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 ▲ 웨어러블 수중탐색장비 ▲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 자폭 무인기 ▲ 소총 조준사격 드론 ▲ 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제공 드론 ▲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 지능형 항재밍 센서 등이다.

신속시범획득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7월에는 4개 사업이 1차 사업으로 선정됐다. 1차 사업 과제는 오는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2차 사업 12개 과제도 연내 계약이 추진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농식품부 오늘 ‘생물안전 학술대회’ 개최

민·관 생물안전 전문가들이 병원체 안전 관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물안전관리본부와 함께 ‘2020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컨퍼런스)’를 20일~22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공동 주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생물안전’, ‘국가관리 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K-방역·바이오헬스 세계로 세계 첫 온라인 전시회 개막

산업부, 국내외 기업 448곳 참가
제약·의료기기 등 전분야 총망라

‘K-방역’을 앞세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인 바이오헬스월드와이드온라인(Bio Health Worldwide Online 2020, 이하 바이오헬스전시회)가 국내외 기업 448개사(국내 436개, 해외 12개)가 참가한 가운데 19일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인포마켓(informamarkets)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 준비됐다. 해외에서 호평받는 K-방역 제품과 솔루션은 물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바이오헬스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를 망라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인포마켓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연간 550개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 지부에 4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1위의 글로벌 전시회 주최사다.

산업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전시회를 통해 코트라가 보유한 해외 129개 무역관 마케팅 노하우와 인포마켓의 전시회 운영 능력을 결합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CES(전자·IT, 미국), MWC(IT, 스페인), HNNOVER MESSE(기계, 독일)와 같은 글로벌 오프라인 전시회는 없으나, 코로나19로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전시회 만큼은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참가 제조기업은 전시회 개막인 이달 30일까지 해외 바이어 650개사와 2주 동안 집중 화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퍼런스, 투자유치 IR, 웨비나 등 부대 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K-방역관을 통해 최근 주목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과 관련된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K-방역관, 바이오·제약관, 의료기기관, 헬스케어서비스관 등 4개로 구성된 가상 전시관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언제든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K-방역관에는 음압기 및 열화상 출입통제장비는 물론 진단·검사 장비 및 검체채취 도구 및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제품들이 총 망라됐다. 특히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진단시약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품목들이 다수 전시됐다. 19일 시작된 온라인 데모데이에는 해외 투자자를 기다리는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5개사가 참가했다. /한용수 기자 hys@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강기정, ‘옥중서신’ 변호사·검사 고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는 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한 변호사와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에서 A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이와 함께 옥중서신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한 내용도 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봉현의 자필 글에 따르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더해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총체적 검찰 계이

트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사건의 진위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이 그동안 밝힌 법정 진술에 대해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직접 서술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간접 진술과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진술을 수사하고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또 “A 변호사와 B 검사가 나는 이야기 사실 여부는 잘 모른다”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결과, 실질적 피해 당사자는 저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밝혀서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전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강 전 수석의 GPS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 “빨리(사실) 확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서로 외면하는 지방의대-지역학생... 인재선발 ↓ 자퇴생 ↑

(지방의대)

(지역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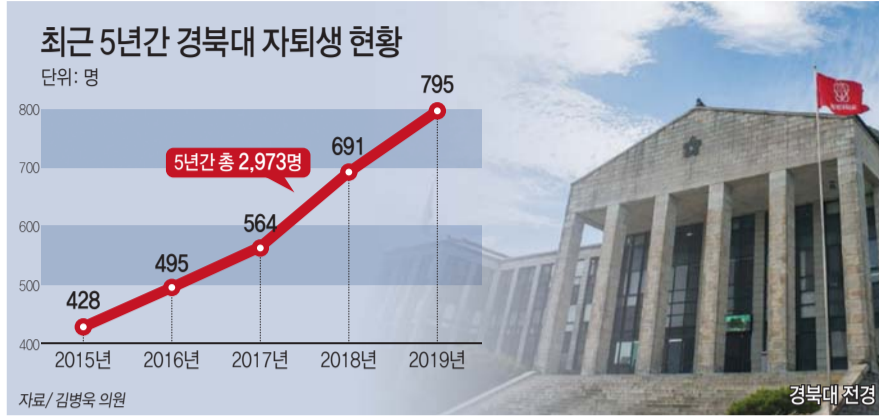
2020 국정감사

지역인재 권고비율 미충족 대학 30%
한림대 의예과, 지역인재 3명 선발
경북대 자퇴생 5년간 3000명 달해

지난해 대입에서 지방대 의·약학 계열 대학 39곳 중 12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가 39개 중 12개 학과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의과대학, 한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0%)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권역의 권고 비율은 15%다.

자료를 보면 올해의 경우 강원지역은 한림대 의예과가 전체 정원 78명 중 3.8%인 단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대 한의예과는 5%인 3명 밖에 되지 않고 울산대 의예과도

40명 정원 중 5명 선발에 그쳤다. 강릉원주대도 정원 42명 중 14.3%인 6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반면 기준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넘는 대학은 ▲ 동아대(의예과) 83.7% ▲ 경북대(의예과) 69.1% ▲ 전북대(의예과) 66.9% ▲ 전남대(의예과) 66.4% 등이다.

박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 인재 선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중요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 의대가 해당 지역 학생을 외면하는 동안, 대학생들도 지방 대학에 등돌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경북대 자퇴생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새 자퇴생은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해 타 국립대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총 2973명이 학교를 떠났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대의 입학정원은 4961명으로 매년 입학정원의 약 12% 가량이 자퇴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경북대 측에 따르면 자퇴생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뿐 아니다. 전국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자퇴 문제를

공동적으로 겪고 있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의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2014년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했다. 다른 대학도 20~40% 자퇴생이 증가했지만 2배가 증가한 것은 경북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필기전형 바꾸는 코로나... 온라인화·미 실시

국내 주요 그룹 하반기 채용

삼성, LG, SK, KT 등 신입사원 총원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선발방식 급변

삼성, LG, SK, KT, CJ, 포스코,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그룹이 하반기 공채, 수시, 인턴 후 직원선발 등을 통해 신입사원 총원에 나섰다. 선발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서류전형 이후 절차 역시 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인크루트가 조사한 '2020 하반기 기업별 신입공채 인적성 시험 실시방식'에 따르면, 그간 신입공채 방식을 유지한 주요 기업들에서는 9월 초 서류접수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10월에 대규모 필기 시험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10월 하반기는 기업별 인적성 시험이 이어진다.

그러나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존의 지필시험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는 등 많은 변화가 발견됐다.

먼저 삼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를 예정이다. 일정은 이달 31일(토)과 내달 1일(일) 양일간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삼성은 응시자 키트를 발송했고,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하반기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LG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로 전환했고, 이달 계열사별 시험

<하반기 기업 필기전형 채용방식>

분류	기업	필기전형
온라인	삼성	온라인 GSAT 실시
	LG	온라인 인적성검사
오프라인 (병행)	롯데	실시 (L-TAB)
	SK	실시(SKCT)
	포스코	실시(PAT)
	KT	실시(인적성검사)
미 실시	CJ	인턴십 대체
	신세계	인턴십 대체
온라인 코딩 테스트	카카오	실무역량 검증
	네이버	
	NHN	

/인크루트

을 실시했다.

SK, KT, 포스코, 롯데는 오프라인 시험을 유지한다. 먼저 SK그룹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일은 이달 25일이며, 일부 계열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포스코는 이달 24일 인적성검사(PAT)를, 나머지 계열사는 AI역량검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KT도 지난 주말 지필시험을 실시했다. 올해 첫 공채를 폐지한 KT는 하반기 6주의 인턴기간을 거치는 대졸인턴제를 도입했다.

하반기 디지털전환 부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중인 롯데그룹은 온라인 인성 검사와 오프라인 직무적합검사를 병행

해 실시하며, 계열사별 차이가 있다.

그런가 하면, CJ와 신세계는 필기전형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CJ는 인턴십 형태의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직무 실무 평가인 '직무 Fit' 테스트로 대체한다. 신세계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프로페셔널 인턴십 전형'으로 구직자를 평가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13년 일찍이 신입사원 모집시 인적성 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코로나 여파로 AI채용을 도입한 기업도 늘었다. GS 주요 계열사가 인적성 검사 대신 AI역량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외 다수 기업의 채용전형에 온라인 AI채용전형이 포함됐다.

끝으로 카카오, 네이버, NHN 등 하반기 개발자 공채를 진행한 주요 IT기업들의 경우 모두 온라인 코딩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공통점도 갖는다.

카카오는 간단한 인적사항 작성 이후 대대적인 코딩테스트를 통해 실무역량을 검증한 뒤 1,2차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전형상의 특징이라면, NHN은 온라인 SW지식 테스트를 통해 직무역량을 검증한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삼성과 LG는 온라인, SK·KT·포스코는 오프라인, CJ와 신세계는 미 실시 등 차이를 보인다"라면서 "올해는 급변한 경영환경만큼이나 기업별 선발방식에도 유독 변화가 많은 한 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광운대, 광운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대상 300만원 등 총 1300만원 상금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일대를 대학문화가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9일 광운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창의성, 실현가능성, 완성도, 적합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3팀 각 100만원, 장려상 4팀 각 50만원, 특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가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를 발족했다.

/인하대

인하대,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 발족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 적극 대응

인하대가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이하 인대연)'를 발족하고 대학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생활 보편화로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인대연은 대학교육 혁신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변곡점에도 달한 교육을 진단하고 예측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단기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파악해 긴급 개선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할 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비전과 미션에 적합한 의제를 도출하고 반영방안을 강구해 연차별,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인대연은 시작단계인 만큼 교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출발해 전문 교육기관과 솔루션 제공기관 등 교외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건국대, 고효율 수전해 촉매소재 개발

니켈하이드록사이드 동시 형성

건국대는 한혁수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미래에너지공학과·사진) 연구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기존 백금 소재보다 60%가량 저렴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은 높은 새로운 수전해 촉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혁수 교수팀은 수전해 촉매 효율 향상을 위해 촉매 표면에 화학적 표면식각 공정을 적용,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니켈보라이드(Ni₂B), 반응물 흡착에 유리한 니켈하이드록사이드(Ni(O



페러다임을 제시했다.

개발된 촉매를 사용할 경우 기존 귀금속 촉매에 상응하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수소생산효율도 10%가량 높일 수 있다. 촉매 가격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진 기자



2020제약&바이오 포럼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2020. 10. 21 (tn)
14:00~17:0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구분	시간	프로그램
사전등록	13:30 ~ 14:00	참가접수-등록 / 온라인 참가자 개인에게 접속 링크 개별 공지
개회사	14:00 ~ 14:1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연	14:50 ~ 15:20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동향과 대응방안
	15:20 ~ 15:50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이사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치료용 항체개발 연구
	15:50 ~ 16:20	김재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 과장 : 코로나19 백신 규제과학의 이해

- 행사명 : 2020 제약&바이오 포럼
- 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4:00 - 17:00
- 등록 : 사전등록 선착순 40명,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 웨비나 동시 진행
- 문의 : 2020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Tel : 02-721-9826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3F)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BNK경남은행, 경남FC에 발전기금 3.5억 기탁
BNK경남은행은 지역 연고 프로 축구단인 경남FC에 '발전기금 3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FC에 기탁한 발전기금은 노후된 기존 선수단 버스 교체와 선수단복 구입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황윤철 BNK경남은행장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경남FC 박진관 대표이사과 포즈를 취했다. /BNK경남은행

최규복 대표 '지속가능 최고경영자상'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지속가능성 '명예의 전당'

유한킴벌리는 최규복 대표이사(사진)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규복 대표가 수상한 지속가능 최고경영자상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CEO를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이날 최고경영자상수상이 외에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생활용품부문에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광도 누렸으며 지속가능보고서상도 함께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에 이준수 교수

(충북대 식품생명공학과)

기능성 식품 산업 발전 기여 인정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오는 2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2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에는 농식품 자원의 다양한 생리활성 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준수 충북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사진)가 수상한다.



이 교수는 국내 농식품 자원의 성분 분석을 통해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유도제처리를 이용해 기능성이 향상된 새싹 채소를 개발해 산업체의 활용을 증대시켰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남양유업, 대리점 자녀 장학금 누적 9억

'패밀리 장학금' 8년째 677명 지원

남양유업(이광범 대표이사·사진)이 대리점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누적 9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13년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를 위한 '남양 패밀리 장학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올해로 8년째 시행 중에



있다. 지난달 29일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대리점주 자녀 70명에게 지급해, 남양유업은 현재까지 누적 9억 원의 장학금을 677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전달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백남선 단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화의료원 국제의료사업단)

한국의료발전 기여 공로 인정

이화의료원 백남선 국제의료사업단장(사진)이 글로벌 헬스케어 및 한국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메디컬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은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의료관광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로 국내 의료 산업 발전

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개인에게 시상된다. 이대여성암병원장을 역임한 백 단장은 1986년 아시아 최초로 '유방보존술'을 도입한 유방암 명의다. 유방암 조직을 제거해 재발율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며 가슴 재건도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법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성공창업 방정식



이상현의
창업 칼럼

최근 창업은 '생계형 창업'을 넘어서 '목숨형 창업'이라고 한다. 특히나 코로나19이후의 창업은 사회 경기적, 상황상 창업의 성공확률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점검사항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적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필요하다. 즉 표적고객의 소비성향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운영전략을 세워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서비스 금액의 평균 구매가 분석되어야 하는데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의 평균 구매단가와 구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구매 요인이 브랜드인지, 가격인지, 또는 품질과 규격 등 인지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에 따라 창업자가 분석해야 할 표적고객의 여러 가지 요인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파악하여야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

업을 하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창업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며 과학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행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떤 콘셉트로 운영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잘 접목해서 운영해야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창업 방정식 '소비자의 소비성향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성공창업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분석이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구매성향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분석을 통해 그 행동패턴을 판매전략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적고객을 알아봐야 한다.

주요 고객들의 성별과 연령대 평균 객단가, 구매주기, 구매요인, 구매경로 등 분석을 위한 항목들이다.

연령대 또한 구분할 수 있다. 흔히들 좋은 아이템의 요인을 구매주기와 구

매량으로 측정하지만, 그 중 구매주기는 유효 고객수와 함께 객단가를 통한 수익성을 예진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구매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브랜드, 입지, 규모, 가격, 서비스, 품질, 점주, 성분. 참으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요인을 다양하다. 그 많은 요인 중 절대적 가치에 대한 준비 및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코로나19이후의 비대면적 소비패턴으로의 진화와 언택트시대의 확산은 창업과 경영방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객들의 소비성향과 기호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꾸준한 접촉을 위한 비대면적 마케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 행동을 분석하고 공급자입장에서의 점점을 꾸준히 준비하는 노력이 곧 성공창업을 위한 방정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 학 박사)

우리금융, 다문화부부 열 커플 결혼 지원

다문화장학재단 '우리웨딩데이' 온·오프라인 통해 결혼식 진행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다문화부부를 위한 결혼식 '제9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3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다문화부부를 위해 혼인예식, 웨딩촬영, 가족여행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웨딩데이를 합동결혼식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여덟 커플, 오프라인에서 두 커플로 나누어 결혼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멕시코, 미국, 미얀마,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등 총 7개국 다문화부부 열 커플이 선정됐다. 이중 여덟 커플은 웨딩앨범 촬영 시 직



지난 18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주최한 '제9회 우리웨딩데이'에서 오프라인 결혼식을 진행한 다문화 부부 두 커플과 손태승 이사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접 가족을 초청해 사전 촬영한 손태승 이사장의 영상 주례사를 통해 결혼식을 진행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이날 여덟 커플의 온라인 결혼식 영상과 함께 두 커플이 참여한 오프라인 결혼식을 진행해 온·오프라인 방식이 합쳐진 언택트 합동결혼식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다문화이사장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의미있고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 영광"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주례사를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삼광글라스

신제품 체험단 모집

삼광글라스가 '글라스락 베이비 세이프 유리식기&스낵뚜껑 흡착발'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체험단 5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체험단에게는 글라스락 베이비의 신제품 '글라스락 베이비 세이프 유리식기&스낵뚜껑 흡착발'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산 내열강화유리식기와 100% 국내 생산의 실리콘 스낵뚜껑이 한 구성이다.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30일까지 글라스락 공식몰 내 모집 공지를 통해 체험단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인사

- ◆광주시교육청 5급 승진 △감사관 장경화 △정책국 노동정책과 정정례 △교육국 초등교육과 김영순 △행정국 총무과 박사내 △행정국 재정복지과 유영현 △광주시학교시설지원단 최진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나창희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한명희 △광주 송정도서관 안병산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박광석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정소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최인주
- ◆국방부 ◇과장급 인사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장 김서영△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이주용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김후열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문윤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

무 윤영탁

부음

- ▲김영구씨 별세, 김진국(경남 창원군 농축산유통과)씨 부친상 = 18일 오전, 경남 창원공설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09시, ☎055-533-8510
- ▲박중길씨 별세, 전춘성(전북 진안군수)씨 모친상 = 19일 오전, 전북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63-430-7070
- ▲정찬섭 씨 별세, 정영팔(KBC광주방송 서부본부 취재부장·전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씨 부친상 = 18일 오후,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1일, ☎062-227-4010
- ▲방호연씨 별세, 윤택중(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 부국장)씨 모친상 = 18일, 안암 고대병원 장례식장 206호, 발인 20일 오후 1시, ☎02-923-4442

시식코너 사라진 마트... '랜선·집콕 시식회' 자리 잡는다

CJ제일제당 '쿡잇 랜선시식' 시식회·챌린지 등 SNS 이벤트
풀무원식품 '정백홍 집콕시식회' 라이브방송 진행, QR코드 삽입



CJ제일제당 '쿡잇 랜선시식 캠페인' (왼쪽), 풀무원식품 '정백홍 집콕 시식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을 통한 고객과의 만남이 통제되면서 식품업체가 랜선 시식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식품 마케팅 중 하나는 마트 내 시식코너와 팝업스토어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 창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간 식품 브랜드들은 제품의 핵심인 맛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맛있는 냄새와 소리로 소비자를 사로잡아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들었던 마트 시식코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졌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단 감염의 위험을 우려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코너 운영을 중단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 창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빅3의 전국 394개 매장 가운데 시식 행사가 가능한 점포는 50개(13%) 수준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식코너를 없앤 오프라인 판촉 행사에 사용되는 제품 준비비용과 인건비를 비롯해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직접 소비자와 만나 소통하고 신제품 체험을 통한 구매 연결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판촉행사 부재의 단점을 꼽을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매출 급감을 막기 위해 시식 대신 권장을 위한 행사 인원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품의 특성상 시식 없이 권장으로만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식품기업들은 시식 코너를 대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온라인 비대면 시식 체험단을 선택했다. 비대면 시식회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다양한 재미요소를 늘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제품의 맛을 보여주

는 역할과 브랜드 가치와 제품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시식이 소비로 연결되며, 시식 후기를 글로 자세히 전달받을 수 있단 점에서 장점이다. 소비자 입장에는 구매 전 무료로 제품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랜선 시식회를 통해 개발자가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하고, 시식단이 릴레이로 후기사진을 포스팅하기도 한다.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 '쿡잇(COOKIT)'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쿡잇 랜선시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랜선시식'은 음식을 맛본다는 '시식'에 소통을 더한 개념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직접 만들기 어려운 메뉴를 '쿡잇'으로 간단하게 요리하고 식사하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랜선시식회'와 집에서 요리하기 어려운 메뉴를 '쿡잇'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공유하는 '랜선시식 챌린지' 등 쿡잇 인스타그램 및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신제품 정백홍면을 집에서 무료로 맛보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백홍 집콕 시식회'를 열었다. 고객은 매장이 아닌 집에서 안전하게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개발자의 편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읽으면 정백홍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비법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정백홍 집콕 시식회 라이브 방송에는 개발 연구원이 출연해 제품을 소개하고 조리 연출을 시연했다. 그 밖에도 정백홍면 개발 과정, 정백홍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 등을 전달했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신제품 정백홍의 깊고 진한 맛을 더욱 많은 분께 알리기 위해 집콕 시식회를 열게 됐다"며 "요즘 세대를 반영한 온라인 시식회를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삼양식품, 수출 전진기지 '밀양공장' 첫 삽

총 2000억 투입 2022년 초 준공
면·스프·수출전용 라인 등 구축
완공시 라면 연간최대 6억개 생산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19일 밀양시 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밀양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양식품이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될 밀양 신공장의 첫 삽을 떴다.

삼양식품은 19일 밀양시 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정태운 대표이사, 진종기 대표이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일호 밀양시장,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장 착공식을 했다.

행사는 신공장 소개 및 추진경과,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원자철감을 위해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지만 우리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곳 밀양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식품 수출 1위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한국 식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공장은 당초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규모를 700억원 확대하여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초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6만 9,801㎡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

질 예정이다. 면·스프 자동화 생산라인, 수출 전용 생산라인 등이 구축되며, 완공 시 연간 최대 6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은 기존 원주, 익산공장의 12억개에서 18억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이후에도 단계적 설비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밀양공장을 수출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해외 수요 급증에 따라 밀양에 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불닭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2015년 300억원에서 2019년 2,727억원으로 4년 만에 9배 증가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전국 주요 도시서 '릴 솔리드 2.0' 판매

KT&G, 2만여 편의점 판매 확대



관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 2.0'과 전용스틱 '핏 체인지 Q' /KT&G

KT&G가 오는 21일부터 관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 2.0(iii SOLID 2.0)'의 판매지역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판매처는 서울, 세종, 6개 광역시와 경기지역 9개 도시(고양·과천·군포·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의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1만4864개소이다. 이로써 '릴 솔리드 2.0'은 기존 출시된 6045개소 편의점을 포함해 전국 총 2만90개소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동시에 전용스틱 '핏 체인지 Q(Fiit Change Q)'는 전국 모든 편의점으로 판매처가 확대된다.

지난 9월 출시된 '릴 솔리드 2.0'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능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한 KT&G의 관련형 전자담배 2세대 모델이다. 새롭게 적용된 '서라운드 히팅 방식'은 인덕션 히팅 기술을 통한 일정한 가열로 끝까지 균일

한 맛을 제공한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효율로 한번 완충 시 최대 30개 비 사용이 가능하다.

KT&G는 '릴 솔리드 2.0'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제품의 권장 소비자는 11만 원이지만, 할인쿠폰 적용 시 8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전국 모든 편의점으로 판매처가 확대되는 '핏 체인지 Q'는 블렌딩 변화를 통해 앞서 출시된 '핏(Fiit)' 제품들보다 더욱 강화된 타격감을 구현한 제품이다. /조효정 기자

프리미엄 패딩·퍼 브랜드 '한곳에'

롯데백 잡실 에비뉴엘 '브랜드 최다'

롯데백화점 잡실점 에비뉴엘에서 올 가을, 겨울을 앞두고 프리미엄 패딩과 퍼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통패딩으로부터 시작된 겨울 아우터 열풍은 이제 프리미엄 패딩으로 이어져, 국내 프리미엄 아우터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8~19년 겨울부터는 동절기 패션아이템으로 프리미엄 패딩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강점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해외 명품패딩의 대표주자인 '몽클레르'의 경우 19FW시즌 19%, 금년 상반기 39% 신장세를 보이며 급변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도 변하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프리미엄 패딩 정체성을 넘어서 세계적 아이টে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아우터 매장을 매년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를 넘어서 정규 MD로 확대하며 새로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 잡실점 에비뉴엘에는 편집 매장이 아닌 단독 매장으로 최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몽클레르', 캐나다의 '노비스', '무스너클', '맥케이지', 이탈리아의 '파라점퍼스', '듀베티카' 등 8개 매장이 세계적 매장을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드링크인터내셔널 위스키 '패스포트' 출시

위스키 임페리얼로 유명한 드링크인터내셔널이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최초 특급 위스키 '패스포트'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패스포트는 녹색 사각형 바틀의 정통성은 유지하되 모던하고 트렌디한 감성으로 탈바꿈했다. 혼솔트렌드에 부합한 소형 사이즈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도 강점으로 꼽힌다. 200ml 출고가(부가세 제외)는 5000원, 350ml, 500ml는 각각 1만3600원, 1만5500원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여성 건기식 '정관장 화애락 본' 리뉴얼

KGC인삼공사, 홍삼농축액 증량

KGC인삼공사는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화애락 본'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관장 화애락 본'은 바쁜 직장생활, 육아, 가사로 지쳐가는 여성들을 위한 건강케어 제품으로 6년간 홍삼을 기본으로 고품질의 전통원료를 함유하여 식약처로부터 면역력개선, 피로회복, 항산화작용 등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리뉴얼된 '화애락 본'은 홍삼농축액을 1.7배 증량하고, 석류, 크렌베리, 레몬밤 등 특효 소재를 강화함에도 가격은 동결하여 가성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화애락 본

정관장은 여성 건강을 위한 전문 브랜드로 '화애락'을 운영하며, '화애락 본'은 여성의 몸에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갱년기 이전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이다. /조효정 기자

부실 사모펀드 투자... 2900억 유증 '안갯속'

HELIUMITH

유상증자 일정 연기시 관리종목
지난 19일 가격제한폭까지 추락
약 830억원 현금성 자산 확보

헬릭스미스가 잇따른 악재로 추락했다.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로 인한 손실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2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유상증자 일정이 미뤄지면 헬릭스미스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회사는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코스닥시장에서 헬릭스미스는 가격제한폭(29.92%)까지 추락한 2만 1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연내 납입이 어려워지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달 2861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2019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모두 비용 처리하며 관리종목 이슈가 발생했다"며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실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로 주가가 추락하면서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유상증자 발행 예정 금액은 3만 8150원, 납입일은 오는 12월 11일이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파생결합채권(DLS), 사모펀드, 사모사채 등 고위험 투자자산에 2643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중 파생결합 채권 관련 사모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채권(DLS) 등에 투자한 489억원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낮은 매출 현황에서 수익

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함께 그동안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사모펀드의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실 비율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 편입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헬릭스미스가 만일 관리종목에 편입되면 2회·3회 사모 전환사채 297억원과 800억원 등 1097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회사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약 83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 상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커졌다.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 질 수 있고 임상 진행 자금과 운전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낮은 매출 규모 및 지속되는 영업손실 실적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만기연장 거부 및 상환 압박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우선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분쟁조정 신청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상증자의 납입금액은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해 에스 크로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애경산업 '루나' '슬림 브로우 메이커' 출시

애경산업의 메이크업전문 브랜드 '루나'(LUNA)가 진짜 눈썹처럼 정교한 브로우 메이크업을 완성시켜 줄 '슬림 브로우 메이커(사진)'를 출시했다고 19일 전했다. 루나 슬림 브로우 메이커는 펜슬과 파우더를 하나에 담은 2 in 1 멀티 아이 브로우 제품이다. 1.6mm의 얇은 펜슬은 섬세한 브로우 메이크업이 가능해 눈썹을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 가능하며, 펜슬 반대편에 내장된 파우더로 눈썹 사이 빈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쿠팡 프로모션

쿠팡 미리 준비하는 블프데이

쿠팡은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인기 가전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미리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트북, 휴대폰, 대형가전, 기타주방가전 등 주요 브랜드 61개가 참여해 8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삼성, LG, 다이슨, SK매직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을 최대 53%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노트북/태블릿 ▲휴대폰/디지털 ▲TV/대형가전 ▲이미용/건강가전 ▲기타주방가전 등 16개 카테고리 구성, 각 품목별로 할인 상품을 제안하여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쿠팡은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사기간 동안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의 타임 찬스' 상품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니클로사마이드' 호주서 임상1상 승인 코로나 백신 기대감 '낭보'

대웅제약, 인도서 안전·내약성 확인
글로벌 임상시 인종 차이 설명 활동

대웅제약은 16일(현지 시간)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치료제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이 호주 식품의약품(TGA)으로부터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11월,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 1상은 현지에서 건강한 피험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확보되는 임상결과는 백인 대상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임상시험 진입 시 인종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DWRX2003은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

하는 기전을 가진다. DWRX2003은 대웅그룹 고유의 약물전달체 기술을 활용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서방형 주사제로 개발한 것으로 ▲경구투여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한 점 ▲1회 투여만으로 바이러스 질환 치료가 가능한 농도 유지가 예상된다 ▲경구투여 시 발생하는 소화기계 부작용(오심, 구토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체내 효능시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미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인도에서는 1,2차 그룹에 걸친 건강한 대상 투약 결과 임상 참가자들 사이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국내 및 호주에서의 인종별 안전성 결과가 추가로 확보되면,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pre-IND미팅 예정으로 임상 2상 신청을 통해 글로벌 2상, 3상 진입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간의 날' 기념 공개건강강좌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23일 금요일 오후 2시 별관 9층 강당에서 제 21회 '간의 날' 기념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만성바이러스간염의 치료(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김범경 교수) ▲간경화는 언제 발생하고 치료 가능한가?(한림대춘천성심병원 소화기센터 석기태 교수) ▲간암의 최신 치료(서울의대 소화기내과 유수중 교수)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김동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번 강좌는 간염·간경화·간암 등 전반적인 간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서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간 질환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부득이하게 현장 강의 취소시 사전 신청자에 한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및 수강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bhc치킨, 가맹점과 동반성장 견인

가맹점 월평균 매출 35% 상승

bhc치킨이 올 3분기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해 매출 3000억 원 돌파와 함께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등 본사와 가맹점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일궈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가맹점 월평균 매출 지속 상승에 이어 3분기에 가맹점 월평균 매출 35% 상승 및 최고 매출을 기록해 연말 본사 매출이 4000억 원대를 돌파할 것이라 예견했다. 특히 올해 가맹점 월평균 매출 상승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물론, 8월 최고치 달성에 이어 9월 이를 경신



해 4분기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bhc치킨은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본연의 역할과 책임(R&R)에 충실한 본사 기본 방침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가맹점은 본사 매뉴얼에 맞게 매장을 운영하고 가맹본부는 매년 2회 이상 신메뉴 개발을 비롯한 적극적인 광고,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연이은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 평균 대비 올해 6월 기준 QCS 위반 발생 매장이 축소됨과 동시에 소비자 컴플레인 수가 약 70% 감소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피부장벽 강화 '후시메디 리커버리크림'

한미약품 약국전용 화장품 라인

한미약품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신규 출시했다. 한미약품은 약국전용 화장품 라인인 프로캄의 신제품 '후시메디 리커버리크림'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습해진 피부는 염증, 가려움증 등 각종 트러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며 "후시메디 리커버리 크림은 주름 개선은 물론 피부장벽 강화와 피부균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설명했다. 후시메디 리커버리 크림에는 '푸시디움 코식네움' 성분이 함유됐다. 푸시디움 코식네움은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진균



프로캄 후시메디 리커버리크림

의 발효물로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피부장벽 강화 인자인 필라그린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강화, 보습, 피부활력 증진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한미약품의 특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3종 유산균(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비피도박테리움락티스)도 함유돼 보습, 항염, 가려움증 완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맥도날드 맥드라이브 이용 이벤트 실시

맥도날드가 브랜드 캠페인 '언제나 가까이, 맥도날드'를 선보이고, 맥드라이브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최근 공개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통해 '언제나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맥도날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맥드라이브를 이용하는 한 가족의 스토리로,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차 안에서 속삭이며 주문하는 가족과 고객의 상황에 발맞춰 응대하는 센스 있는 크루의 모습이 담겨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맥도날드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늘(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맥드라이브에서 맥치킨 3종 단품구매 시 무료 세트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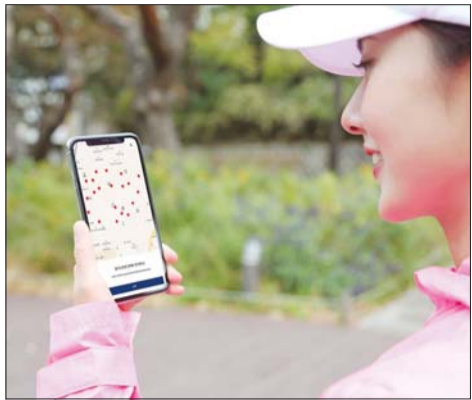
/조효정 기자

현대차 “깨끗한 세상 위해 함께 달려요”

친환경 사회공헌 ‘엔택트 펀 레이스’ 달리기·자전거 참여시 환경보호 기부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롱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엔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롱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달리기나 자전거를 타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부하는 현대차의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유료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자동차 시트 폐자재를 재활용한 어린이용 달리기 트랙 조성에 기부될 예정이다.



현대차가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롱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엔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올해 마지막 롱기스트 런 행사인 ‘엔택트 펀 레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비대면 레이스에는 총 93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에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면 롱기스트 런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스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통과하면서 증강현실(AR) 미션을 1시간 내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레이스는 총 8일간 운영되며 1차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수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다. 참가신청은 19일부터 롱기스트런 전용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CC, ‘지속가능성 지수’ 건축자재 부문 1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6년 연속 수상

KCC가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쓴 공로로 우수기업에 뽑혔다. KCC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건축자재 분야 1위 기업’에 뽑힌 동시에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KCC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로 6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은 KCC가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힘쓴 값진 결과다.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업종별 애널리스트, 환경 심사원 등 414명의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협력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왼쪽부터)심재국 KCC 총무인사총괄 상무와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사, 주주, 임직원 등 2만56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진영에 갇힌 라임·옵티머스



기자 수첩

송태화 (파이낸스&마켓부)

엇을 위한 평가인지 그 방향성마저 불분명해졌다.

갈 곳 잃은 국정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 구조적 문제에서 금융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한껏 꼬다 식어가는 여론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업기 위한 정치인의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SNS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숲을 통해 “공천심사에 국감실적으로 반영되는 상은 원내대표상이 유일해 의원실마다 (받기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내대표상 수상자는 공신력 있다고 평가되는 매체에 실린 기사 수와 이로 인한 보도성과에 의해 선정된다고 한다.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수차례되고 있다는 얘기가.

판매사가 문제의 사모펀드를 팔게 된 핵심 이유로 지적받은 것 중 하나가 승진과 인센티브 산정 등에 활용되는 핵심성과지표(KPI)였다.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직원을 경쟁으로 내몰았던 방법이 본인들 스스로가 당하고 있으니 실소가 나올 뿐이다. 금융범죄에 희생됐던 펀드 피해자는 이번엔 오염된 진영논리라는 바뀐 목적 아래 또 한 번 이용되고 있다. /alvin@

최악의 국정감사다. 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 기능은 퇴색된 채 의혹을 확대하고 추궁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개이트’로 규정해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그랬던 공방전은 공수가 잠시 뒤바뀐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 하면서부터다.

보수·진보의 낡은 진영논리는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거대 사모펀드 사태까지 편을 갈랐다. 펀드 조성과 운용 과정, 감독 당국의 감시 책임까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향한 애국된 음모론만 쏟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실제 실정을 추궁하기보다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고질적인 진영논리에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누구를, 그리고 무



김상회의四季

하나라도 잘해야

현대는 멀티태스킹의 시대다. 동시에 이 일 저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냐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하면서 전화통화도 하고 손으로는 업무 작업을 하고 눈과 귀는 물론 손까지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점을 그리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단순한 동작이나 일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뭔가 주의를 요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말하고 싶다. 걸을 때는 제발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먹을 때는 먹을 때 집중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필자의 학창시절은 돌이켜봐도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런 학생일수록 그리 공부성적이 기대 이하였던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신경이 분산되게 되면 이도 저도 성과를 내기 힘들다. 마치 양 손에 떡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젠가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은 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취미로 또 다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다른 한 분야는 아마 추어일 뿐이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힘이 되는 것은 자신의 기본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주팔자구조에서 치우친 오행으로 명조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일 기질이 농후하다. 특히 예술가의 기질이 강한 경우는 화(火) 오행이 많다던가 하는 식이다. 물론 단편적으로 관별은 금물이지만 년월일시에서 특히 월(月)에서 어느 오행이 투간되어 격국(格局)을 이끌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핀다면 그 사람의 전문분야를 관별할 수가 있다. 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재능을 계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9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여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48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도 있다. **60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2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84년생** 확실한 거절이 편하다.
- 37년생**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49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1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 두드려라. **73년생** 지나친 간섭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8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 38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50년생** 총연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 법. **62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74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86년생**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일이 해결.
- 39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51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63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5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87년생** 마음은 여유만만.
- 40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52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64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찬찬히. **76년생** 거미줄을 걷어내고 말끔히 청소. **88년생**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 41년생** 좋아도 내색하지 마라. **53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65년생** 손재주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 **77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한다. **89년생**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 42년생** 일이 경솔하여 주변이 시끄럽다. **54년생** 상대는 호의를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6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78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90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 43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라. **55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67년생** 규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79년생** 과다한 지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91년생** 새로운 물건이 집안에 들어온다.
- 44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68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 노력을 해라. **80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에 주의. **92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 45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다. **57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69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81년생** 후배와 갈등이 생기니 곤란하다. **93년생** 남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 46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70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 **82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라. **94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이.
- 47년생** 자녀의 방으로 지갑이 빈다. **59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부족한 것이 낫다. **71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한다. **83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롭다. **9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이니 마음이 아프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 학습법

문제출제: 손호성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방탄 브라운 저 | address | 15,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9	3	7	6	C		
5	C	6	1	B	9	A	2
4	7	8	2	5	C	3	6
1	6	B	4	2		A	C
2	5	6	C	1	3	4	8
	3	B	A	7	6	2	1
C	6	1	9	7	A	8	
B	3	9	5	6	8	2	4
A	2		B	4		6	3
5	A	8	7	3	1	B	C
6	9	C	A	B	8	1	7
	1	C	4	8	5	2	

6	5		8		7		
	7			4			9
			3			2	
2							3
7		1				8	4
	9						6
		4		5			
8			3			1	
			2		6		9

정답

9	2	9	8	6	7	0	8	1	8
8	2	1	8	9	8	2	7	0	7
7	0	6	8	1	9	8	1	2	8
6	8	9	2	7	0	8	1	9	2
5	1	0	1	0	8	9	9	6	1
9	8	8	2	7	8	1	6	1	9
1	6	2	9	2	7	5	9	8	7
1	8	8	7	8	1	0	7	9	2
0	9	5	6	2	8	7	1	8	9
8	9	8	1	0	9	6	2	8	7
2	7	2	6	8	7	1	8	9	0
8	7	0	9	9	2	7	8	6	1

새로운 과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5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55호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 추진… 무등록점포 대책 마련”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시장상인 화재공제 가입 13% 인식개선 등 가입을 제고해야”
 “미판매 온누리상품권 누적 2조 내년 4조 발행… 계획 수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책·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전통시장내 무등록점포 해결 방안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대책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문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운영 미숙, 수출바우처 사업 허접 등이 대표적이다.

창사이후 올해 첫 흑자 원년을 예고하고 있는 공영쇼핑에 대해서 최창희 대표의 회사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에게 “전통시장의 무등록 점포는 단속 대상이냐, 단속 대상이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조봉환 이사장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통시장내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 비율은 전북이 45.2%로 가장 많고, 울산(35.3%), 충북(31%), 제주(30%) 등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전통시장내 17%가 무등록 점포 상태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르고 있다. /뉴스1

둘 계획이나, 무등록 점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주무부처인)중기부와 논의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낮은 가입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이 일정 금액의 공제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를 돕는 상품이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커 (화재공제)가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가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내 18만4412개 점포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곳은 2만3927곳으로 가입률은 고작 13% 수준이다. 정부와 소진공은 올해의 경우 3만개 이상까지 가입점포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중에선 여전히 미미한 숫자다.

조 이사장은 “화재공제 상품이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보다 (비용이)30% 가량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만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률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이 맡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온누리상품권 가운데 일부가 재유통됐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용역업체가 폐기했다는 179장과 금융기관이 폐기한 4장 등 총 183장의 폐기(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다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진공은 이에 대해 고발조치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이 누적으로 2조원 어치에 육박한다”며 “내년에 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예측을 잘

못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정책이 보완·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진공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내일채움공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진공은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 취업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소관), 재직근로자가 가입대상인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지당한 청년이 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라도 재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엔 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전액 반납한 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부처는 다르지만 유사한 상품을 놓고 온도차가 서로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가입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재산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준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쇼핑은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부정채용 의혹 문제 등이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공영쇼핑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았다. 상임감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공영쇼핑 노조조합원이 작성한 직장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에 대해 ‘팩트체크’라며 반박을 했다. 내가 보기엔 (반박한) 이게 더 잘못된 팩트 같다”고 꼬집었다.

최창희 대표는 “취임할 당시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로 인해 전 직원의 10%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하면 징계를 먹고, 또 징계가 반복돼보니 인사가 잦았다, 또 유통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필요한 태스크포스(TF) 조직 과정에서 인사를 추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설문조사를 놓고 (회사가 다시)반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상임감사 등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별도로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기된)나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해 중기부에 추가로 감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2018년 당시 공영쇼핑이 마케팅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인자 ▲10월 둘째주로 예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등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웠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승호·백지연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진홈센터-철물 편집숍, 맞손… ‘팝업스토어’ 문열어

‘에이스하드웨어×정음철물’ 운영 제품 체험 기회, 고객과 접점 확대 공구·페인트 등 PB상품 큐레이션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홈센터가 철물 편집숍과 콜라베이션을 펼친다.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브랜드 에이스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홈센터는 ‘에이스하드웨어×정음철물’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8일까지 서울 서대문 정음철물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에이스 하드웨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주식회사 정음과 함께 기획하게 됐다.

에이스 하드웨어 팝업전시존이 마련된 정음철물은 1993년부터 연희동의 사랑방이었던 정음전자를 새롭게 재해석해 만든 동네 철물 편집샵이다.

건축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지역의 목수, 장인을 소개하며 유튜브 채널 ‘철물TV’를 통해 전기·공구 사용법을 알려



유진그룹 계열인 에이스하드웨어와 정음철물의 협업 팝업스토어.

준다.

큐레이션샵에서는 양질의 하드웨어와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이번 ‘에이스하드웨어×정음철물’ 팝업스토어는 에이스 하드웨어의 대표 취급품목인 공구, 페인트, 인테리어·건축자재 중 인기 PB상품만 큐레이션해 선보이며, 유진기업 전자제품도 소개한다.

또한 실크스크린인쇄 기법으로 제작한 맨투맨 티셔츠, 마스크 스트랩, 목장

갑 등 에이스 하드웨어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굿즈를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유진홈센터는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1인1회 한정 ‘마스크 스트랩’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 인종상을 SNS에 올리면 ‘목장갑’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ACE폴딩박스 25L’를 선물한다.

/김승호 기자

교수·연구원 창업부담 던다

기보 ‘테크밸리 보증제도’ 확대시행 기획창업 기업 운영, 사업주력 도와

기술보증기금이 교수와 연구원들의 창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기보는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하는 등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기술책임자(CTO)로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한다.

‘기획창업 기업’은 교수·연구원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교수·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CTO로 참여해도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을 적용해 테크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밸리 보증은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 및 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기보는 그동안 협약기관 확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총 92개의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352개의 테크밸리 기업을 발굴해 6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투자유치, 연구개발, 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창업 기업도 테크밸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수·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www.pdna.co.kr

연어의 힘으로 빛나다

P+DNA 세럼 & 크림

3배 강화된 연어DNA로
광채피부를 경험하세요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동안피부를 위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50%」특별할인

P+DNA 런칭 2주년 기념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리지널 제품을
파격가에 드립니다

(*sodium DNA 1000ppm)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퍼밍
프랑스 세더마사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고롭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탄력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동상이몽’ 광주·전남 행정통합, 새국면 맞아

이용섭 시장, 다른 대안 등 밝혀 경제통합론 김영록 지사 ‘화답’ 교착상태 통합논의 급물살 주목 이 시장 즉흥적인 철회 지적도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통합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통합논의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19일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의 시·도통합 관련 시정질문 답변에서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 통합방식이나 통합시점은 중국적으로 시도민이 결정할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말미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말한 경제통합이나 메가시티 등도 논의구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전남이 두 차례 실패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사례를 주장했던 이 시장이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통합



지난해 11월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합의문 서명을 마친 (왼쪽 두번째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이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5

방식과 시기 등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세인 시·도 통합에 대해 찬성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 ‘동상이몽’ 속에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이 시장의 입장 선회는 김 지사가 역제안한 경제권 통합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했던 행정통합 논의를 이 시장이 철회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이 시장은 송 의원이 제안한 시도 공동용역발주 제안에 대해 “시도간 통합논의기구에서 공동연구용역을 협의하겠다”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향후 통합에 대한 방식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김 지사가 지난주 도정질문 답변에서 “통합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방법과 절차 등을 연구하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민선 8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방식, 시점, 절차 등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가 일단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의 통합이 행정통합만이 아닌데, 그렇게 비쳐졌지만, 통합방식이나 시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시도간 통합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오늘 입장은 결국 통합논의를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는 김 지사의 뜻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통합논의는 전문가 집단에서 머리를 맞대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관계에서는 “통합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처럼 진행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 이 시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동안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한 논리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영암군 지역 상품권 불법유통 강력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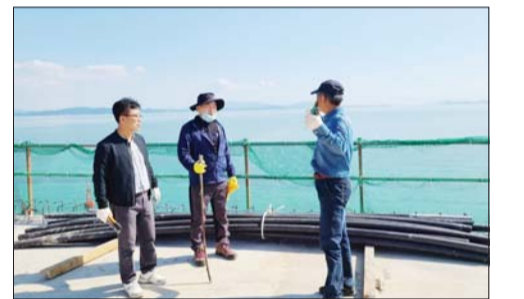
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 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해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제형 세무조사 의뢰·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소등섬 사업현장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 둘레길’ 본격 조성 추진

장흥군은 용산면 남포마을 소등섬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장흥군 최초 읍·면 대상 공모사업인 2021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에 ‘용산면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소등섬 권역에 장흥을 대표하는 언택트 시대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기존 해맞이, 사진촬영 등 관광 명소로 기능해 온 소등섬 일대에 둘레길, 전망대, 야간경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약 30억 이내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장흥(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l@

신안군 우이도 ‘반려동물과 여행 섬’으로 변신

신안군의 하얀 모래섬의 우이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 동물과 다양한 식물이 공존하는 우이도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영원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도록 조성한다.

이에 따라 우이도 마을간 연결 도로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101마리 달마시안 잠박이 개, 프란타스의 개 파트리쉬, 설화와 전설에 등장하여 주인과 사람의 생명을 구한 명견 등을 형상화하고, 동물의 생명 윤리의식을 높이고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반려동물장묘시설(화장장, 납골당)을 확충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견호텔, 애견동반 가능한 민박시설, 달뜰물랑 산책로와 놀이터, 애견전용 풀장도 함께 설치한다.

또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상생하고, 결과속이 아름다운 ‘펫섬’으로 조성한다. /전남=안병주 기자 abcd@



코스모스 물결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문산천 주변 3만3000㎡에 코스모스와 국화꽃이 만개해 저녁노을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다고 파주시가 19일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부산시, 신혼 주거부담 완화 주택용자 확대 등 대폭 지원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기준 완화 주택용자 1억5000만원으로 확대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돼 있는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 1억원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평균 전세

가의 50% 정도로 높여 실효성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신혼부부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에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확대돼 최대 1억5000만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경북교육청, 교육공동체 인성교육 강화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은 장기간원격수업으로 인한 대면 생활지도 부족에 따른 인성교육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실천·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의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교육청은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개 권역(포항, 안동, 구미, 문경, 경산) 인성교육지원센터와 경북도교육청연구원 인성인문학교육지원센터에서 공예, 다도, 천연염색, 저자와의 만남 등을 주제로 155개교를 대상으



경북교육청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성교육 강화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시 매시간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고, 온라인 활용 칭찬 릴레이, 시낭송, 도전! 성취프로그램 등 쌍방향 소통의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예천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예천군은 지역 내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다른 사회적기업의 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민간 주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기관이 직접 지역 특성과 자원을 조사해 그에 맞는 지역 기반형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사회적기업의 양적·질

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예천군 지역 특색을 활용한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협력·상생을 위해 경북창업성장사회적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천군 사회적기업 우수 모델은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 김유진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회룡포주식회사 한상준 대표가 선정됐다. 군은 지난 15일 경북창업성장사회적재단에서 주최하는 협약식을 통해 참여기업의 온라인 광고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서울시 정보공개율 20% 급감

(10년간)

공개결정 불복 신청 2배 넘게 증가 “서울시 행정 투명성 높여야” 지적 시민의 정보주권 실현 취지 무색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서울시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건)				기타취하 등 (건)	공개율(%)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9	18881	10591	6388	3675	528	8290	60.3
2014	6327	3617	2944	537	136	2710	81.4
2013	5367	3263	2781	411	71	2104	85.2
2012	9133	3387	2955	348	84	5746	87.2
2011	5077	2652	2153	232	267	2425	81.2
2010	3746	2369	1883	217	269	1377	79.5

열린 시정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지난 10년간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이 2배 넘게 증가해 서울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0년 3746건에서 2019년 1만8881건으로 5.04배 증가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 제도를 법제화했다. 시는 지난 2000년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행정정보를 주인인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무색하게 최근 10년간 정보공개율은 19.2% 감소했다.

전체 청구 건수 중 기타 취하된 사례를 제외한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 총 2369건 중 1883건이 전부 공개돼 정보공개율은 79.5%였다. 이는 2011년 81.2%에서 2012년 87.2%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에는 1만591건 중 6388건만이 전부 공개돼 정보공개율이 60.3%에 그쳤다. 서울시는 10년 전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해졌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개인들의 정치·사회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고위관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내적·외적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공개 건수는 2010년 2699건에서 2019년 5288건으로 2배 폭증했다. 지난해 비공개 결정의 주

요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가 45.5%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생활 침해(17.6%),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15.7%), 재판 관련 정보(8%), 법령상 비밀·비공개(7.2%)가 뒤를 이었다.

시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불복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불복할 경우 해당 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의 정보공개 불복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각각 77건, 0건, 0건에서 2019년 155건, 17건, 5건으로 늘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양재수소충전소, 하루 충전 60대로 확대

서울시, 내년부터 정상운영

나 설비 고장으로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서초구 소재 ‘양재수소충전소’의 용량을 증설해 하루 충전 가능 대수를 현재의 2.5배인 60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에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해 연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양재·상암·강동상암·국회 등 4곳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양재충전소는 2010년 9월에 세워졌으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수소차가 1185대 보급돼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에 135대(11.4%)로 가장 많다.

서울시는 시설개선을 앞두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오후 8시 시청본관 서울온(지하2층)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화상으로 참여할 서초구민 90명을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현정 기자

위기의 MICE 산업 ‘온라인화’ 돕는다

서울시, 온·오프라인 결합형태 확대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대면 모임 중심인 MICE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예정된 행사 90%가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시는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MICE 행사의 온라인화를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 중심이었던 지원 정책을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확대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행사 유치를 위한 컨설팅부터 참가자 모집을 위한 해외 홍보, 웹 세미나, 가상전시 플랫폼 구축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온라인 행사에는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 비용 지원금(최대 2억원·평균 2000만원)의 80% 수준을 지급한다.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열면 지원금을 기존 금액의 120%까지 늘려 준다.

글로벌 행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 기획안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32개 전시·기획안을 선정했다.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방역 게이트, 안전인식 체온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문 위생·방역 서비스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안내서도 제작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참가자에게는 안심보험 가입과 24시간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 도심 ‘움직이는 공원’ 조성 확대

시민들에 일상의 휴식·위안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미세먼지 ↓ 작년 10개 이어 올해 6개 추가 설치



움직이는 공원 조성 후 모습(금천구 말미사거리).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일상의 작은 휴식과 위안을 주기 위해 이동 가능한 화분에 나무(교목, 관목)와 초화류(화훼식물)를 심어 ‘움직이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움직이는 공원은 장소 제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서비스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앞, 보도, 광장, 공터 등 인구 유동량이 많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때문에 나무를 직접 심거나 심을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다양한 장소에 녹지 공간을 선보일 수 있다.

시는 움직이는 공원을 통해 ▲그늘 쉼터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감소 ▲도심경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10개에 이어 올해 6개의

움직이는 공원을 추가로 설치했다. 작년에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과 같은 도심에 중심으로 설치했다면 이번에는 버스환승센터, 지하철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원을 뒀다.

올해 움직이는 공원이 생기는 곳은 ▲성북구 정릉동 966보도 앞(길음뉴타운 10단지 아파트 앞) ▲울현공원(강남구 밤고개로 21길91) ▲은평구 DMC역 앞 ▲은평구 수색역 앞 ▲구로구 신도

림테크노공원 앞 버스환승구역 ▲금천구 말미사거리 앞 광장(독산동 1008-1) 총 6곳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광장, 도로변 공터를 비롯한 도심 내 소규모 공간에 다양한 테마의 공원을 배설할 것”이라며 “움직이는 공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인센티브

8월까지 2500여명 반납

고양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참여한 고령운전자 2500여 명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25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2020년 들어 고령운전자의 자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8월까지 200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는데, 올해 참여자는 월평균 100% 증가한 셈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관광공, 한국 문화 알릴 ‘K프렌즈’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를 위한 대규모 온라인 서포터스 ‘K프렌즈’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비대면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 향후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올해 1만명, 2023년까지 5만명, 2025년까지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프렌즈 회원들은 공사 32개 해외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칭을 통해 각 지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자신의 SNS로 공유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공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외에 회원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사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임명장과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가입자 중 선착순 1만명에게 ‘웰컴키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0일 (화)

음력 : 9월 4일

수도권 날씨

10 ~ 22°C

해돋이 / 06:45 | 해질 / 17:4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이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금융] 차기 KB국민은행장 이만주 확정 허인 現행장 연임 유력 05



Life

[라이프] 시식 사라진 마트 랜선·집콕 시식회 자리 잡는다 11



희망·상생·창의로 가꾼 '사회공헌', 상상 속 세상 만들어요



KT&G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포기하기 쉬운 상상들은 현실로 이뤄주는 기업이 있다.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축, 건강 및 보건 위협 등과 같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3가지 핵심가치 기반 사회적 책임 실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리포트만 공개하는 것과 달리 KT&G는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사회공헌 보고서를 발간해 차별화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해 왔다.

KT&G는 '희망', '상생', '창의'의 3가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보고서는 ▲ '희망'으로 뿌린 씨앗(복지재단·장학재단) ▲ '상생'으로 맺어진 열매(청년창업·상상펀드·사회책임·동반성장) ▲ '창의'로 커가는 나무(상상마당·상상유니브)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문화공헌 플랫폼 상상마당, 글로벌 CSR 등 중점 활동들을 특별 페이지에 담아 그간의 성과를 깊이 있게 다뤘다.

앞서, KT&G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KT&G는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을 보고서에 소개했다.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성금·물품 등 물리적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심리적 지원 활동 등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당신의 상상을 이뤄주는 기업

KT&G는 상상마당을 통해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해왔다. 2007년 '상상마당 흥대'를 시작으로 논산, 춘천, 대치에 잇따라 상상마당을 선보였으며, 현재 연간 방문객 180만명, 매년 300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메카로 성장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예술과 창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 서면에 복합문화공간 'KT&G 상상마당 부산'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은 지난 2017년 5월 부산시청과 'KT&G 상상마당'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3년 만의 결실이다. KT&G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예술, 창



KT&G는 14년째 앞담배 수확 봉사를 하며 농민과 꾸준한 상생 실천하고있다. /KT&G



KT&G가 지난달 2019년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담은 '2019 KT&G S-REPORT'를 발간했다. /KT&G



상상마당 부산 외관. /KT&G

희망·상생·창의의 핵심가치 기반 사회적 책임 실천·청년 지원 앞장

상상마당 조성해 예술가 활동 지원 공연장·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

국내 앞담배 농가에 복지증진 지원 경작인 건강검진·농가 자녀 장학금 일손 부족한 농가 찾아 수확 봉사도

업, 취미의 허브 역할을 할 '상상마당 부산'을 조성하고, 부산시는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상상마당 부산'은 KT&G에서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상 13층, 지하 5층에 연면적 약 20,000㎡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상마당 중 최대규모이다. 1층부터 5층까지는 'PLAY'를 주제로 하는 카페, 디자인매장, 공연장, 갤러리 등이 배치되어 있다. 5층 일부와 6층에는 'CO-WORK'를 콘셉트로 하는 1인 미디어 활동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 마련됐다. 7층부터 13층까지는 'REFRESH' 공간으로 숙박시설, CGV 영화관('21년 4월 입점 예정), 루프탑 등이 자리해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농민과 꾸준한 상생 실천

KT&G는 국내 앞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해 경제적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앞담배 경작인 1000명의 건강검진과 농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4억원의 복지증진 비용을 전달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24억5400만원에 달하며 6900여명의 경작인들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중인 담배업체 중 국산 앞담배를 구매하는 기업은 KT&G가 유일하다.

지난 7월에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앞담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서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담배 농사는 한여름철인 7~8월에 수확이 집중되며,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농가들은 코로나19 위기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G는 이러한 농가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봉사활동을 실시해 농민들과의 상생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30여명의 임직원들이 문경시가 은읍의 앞담배 농가를 방문해 3000㎡의 농지에서 약 4000kg의 앞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KT&G는 앞담배 수확 작업뿐만 아니라 봄철 이식 작업시에도 일손 돕기에 나서며 연중 농민들과의 상생을 이뤄 나가고 있다.

김경동 KT&G 사회공헌실장은 "KT&G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사회공헌 보고서 'KT&G S-REPORT'에 충실히 반영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